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자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는 자를 열성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시며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쁨은 아버지께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기쁨에서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사시는 우리 모든 자녀의 자라는 천국행복으로 기쁨을 지향 천국으로 이끌 수 있게 축복하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들이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1-3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4년 5월 17일 (토) 제 1483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지치고 힘들다...그래도 만족하며 산다!”

바나리서치, 미국 크리스천 엄마들에 대한 자아실현 설문 조사

대부분 크리스천 여성들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육아”라는 현실을 마주할 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된다. 특히 미국에서는 “워킹맘”으로도 자신의 경력을 쌓아야 하고, 가사 일에 친구들과의 만남 그리고 미래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자신이 위치할 지 고민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지만 여성들의 사회 활동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여성들은 한창 일할 나이에 30대에 들어서면 출산, 육아로 인해 여성들의 사회활동은 높은 벽에 부딪히게 되고 만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은 단지 경제적인 목적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물론 경제력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지만, 보다 더 중요

한 것은 바로 자아실현이다. 미국에서 자아실현은 위협적인 정도로 압박을 가해, 직장, 가정 그리고 교회에서 까지도 완벽하게 엄마로서, 직장 상사로서 그리고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를 강요할 정도로 그 요구가 드세다.

따라서 바나리서치는 2013년 5월부터 8월까지 미 전역에서 성인 4,495명에게 전화와 온라인 설문을 통해, 여성들이 앞서 말한 내용들에 대해 물었고, 그 결과 엄마들은 지치고 항상 스트레스에 시달리지만, 만족하고 있다는 결과(신뢰도 95%, 오차율 +/- 3.1%)를 도출해냈다(Tired & Stressed, but Satisfied: Moms Juggle Kids, Career & Identity).

개인적 발전, 교회, 친구들과의 교체 마지막으로 “직장”을, 20% 정도만이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바로 우선순위 상으로는 “직장”이 마지막이지만, 시간을 들여 최선을 다하고 싶은 순서에는 직장이 바로 두 번째 순위라는 점이다.

대부분 엄마들은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자신의 가정생활에 만족하지만(61%), 반면에 가정이 바로 엄청난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그래서 30%만의 엄마들이 자신이 누리는 휴식이나 쉼에 만족하고 있고, 아이들이 없는 여성에 비해(12%), 20%의 엄마들은 만성 스트레스와 신체적 질병에 힘들어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직장가 가정에서 오는 심한 불균형에 힘들어한다. 25%의 여성들에 비해, 31%의 엄마들이 이러한 고충을 털어 놓고 있다.

그러나 여성들(22%)이나 엄마들(24%)은 자신들의 삶에서 가장 향상되기를 원하는 영역을 바로 “교회생활”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결국 더욱 더 신앙공동체에 깊숙하게 관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한편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만족을 느낀다고 엄마들 대부분이 응답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없는 여성들이 더욱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도 응답한다. 이러한 대조는 결국 직장에서도(21% vs. 11%), 재정적인 형편(22% vs. 10%)에서도 아이가 없는 여성들이 낫다고 엄마들은 이야기한다.

이러한 대조에서 오는 왜곡된 견해는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SNS를 통해 더욱 과급되고 있다. (10면으로 계속)

경청 기술 습득...갈등의 폭 좁힌다!

스몰그룹닷컴, 케네스 O. 갱겔 박사의 갈등해소원리 소개

교회 소그룹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끄는 조직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다. 조직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그 조직을 통해 해야 할 과업보다 항상 우선시 된다. 하나 되지 않은 조직이 어떻게 효과적인 조직이 될 수 있겠는가? 조직 구성원의 연합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지도자가 어떻게 조직의 목적을 성취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지도자는 무엇으로 조직의 연합을 만들 수 있을까?

델러스신학교의 부총장이며 기독교교육학 주임교수인 케네스 O. 갱겔 박사는 갈등을 지혜롭게 다루기 위해 먼저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조직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물론 소그룹 안에 갈등이 생겼다고 해서 소그룹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차이는 나쁜 것이 아니라 개성일 뿐이다. 소그룹 구성원 간의 갈등은 공동체가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문제는 갈등 그 자체가 아니라 갈등을 다루는 방법에 있다.

사소한 오해로 생긴 갈등을 잘못 다루었기 때문에 소그룹이 분열될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있다. 반면에 갈등을 지혜롭게 다루므로써 소그룹이 한 단계 발전한 사례도 많다.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그러므로 소그룹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발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 갈등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델러스신학교의 부총장이며 기독교교육학 주임교수인 케네스 O. 갱겔 박사는 갈등을 지혜롭게 다루기 위해 먼저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경청에 서투르다. 그러나 듣는 것은 말하는 것에 비해 훨씬 쉽게 배울 수 있는 기술이다. 게다가 수요도 상당히 많다.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축적하는 유효한 역할을 한다. 적대적인 관계를 옹호적인 관계로 바꾸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며, 가치를 끌어올리고 공동체 내의 평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렇다면 경청하는 기술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케네스 O. 갱겔 박사는 다음의 9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1. 상대방의 관심 분야가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2. 당신의 결정을 잠시 유보하십시오.
3. 상대방 특유의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을 파악하십시오.
4. 유효성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5. 듣는 수고를 감내하십시오.
6. 산만한 분위기를 피하십시오.
7. 관찰력을 키우십시오.
8. 선입견을 없애고 마음을 늘 열어두십시오.
9. 말이 아닌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결론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곳이 소그룹이다. 누군가가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촉진제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소그룹 안에서 아름다운 시간들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크리스천 엄마들은 자녀양육과 가사일로 힘들고 지치지만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다

들에 힘들어하기에 어떻게 하면 일과 가정을 조화시키면서 나아가야 할지를 전혀 모른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없는 여성들에 비해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고 말한다. 도 대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엄마들의 응답 결과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바로 우선순위를 두고 가사와 육아 그리고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

문이다. 아이들을 핑계로 자신들의 인생의 중요한 항로를 결정하지 않고, 남편과 같이 일하고 고민하면서 함께 키울 각오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엄마들은 “가정”이 제 1순위이고, 가장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드리는 텃밭이다. 무려 70%의 엄마들이 가정을 최우선 순위로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2면

벼랑 끝에 내몰린 교회성장, 그러나 성장의 동력은 남아있다!



3면

가정의 달 특집 칼럼
이정의 목사(신촌교회담임)



7면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정성구 박사(ICSK원장)



16면

우크라이나 이야기들
오금옥 선교사(아를란타 롬한인교회)

4/14 Window Movement Korea Conference

‘다음세대’ 살리는 교회학교 부흥 노하우

(영아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주강사

초청강사



김남수 목사
뉴욕프라이미스교회



윤석탁 목사
연세중앙교회



Dr. Wess Stafford
컴패션 총재



김향안 목사
한국교회정보센터



이명희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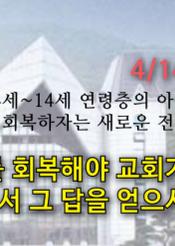
이태호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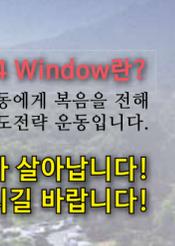
장순직 목사



정인수 목사



허태호 목사



김도연 사모

구교성 목사 김종준 목사 우상호 목사 유충국 목사 이병렬 목사



이명희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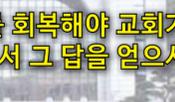
이태호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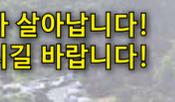
장순직 목사



정인수 목사



허태호 목사



김도연 사모

2014. 6. 2 (월) ~ 5 (목) 수원현돌산수양관

등록비·식사 무료

참가대상 | 목사, 전도사, 교회학교 담당 교역자, 사모
등록필수 | 전화(☎1566-3004)를 통하여 등록 (선착순 5,000명)
인터넷 등록 | 한국교회정보센터 홈페이지(www.kcdc.net)를 통하여 등록
* 준비물 | 성경, 침구(필수), 세면도구

경품 행사



소형차 3대



전자 키보드 100대



크리스탈 강대상



인쇄기 1대



한국교회정보센터

[www.kcdc.net]

한국4/14연합

[www.4to14.net]

문의 _ 한국교회정보센터 Tel. 1566-3004



시론

세월호 참사의 교훈!



최상섭 목사 (에베에셀 선교교회)

한국에서는 지난 4월 15일 인천을 떠나 제주도로 가던 6,825톤급 여객선 "세월" 호가 학생 325명, 교사 14명, 일반승객과 승무원 476명을 태우고 수색여행 길을 가던 중 배가 침몰하여 5월 12일 현재 구조자 172명, 사망자 275명, 실종자 29명이라는 대형 사고가 일어나 한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사망자들의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으며, 온 국가가 슬픔에 잠겨있다. 같은 동족인 남과 북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긴장 상황 가운데서 예상치 못했던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 배의 신속한 침몰보고와 대피방송, 신속하게 구조선을 보내 구조했다면 더 많은 인명을 살릴 수 있었는데, 늑장 대응으로 천금같은 시간을 다 허비하였다는 것이다. 거기에다 선장과 선원들 모두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승객을 버려두고 자신들만 살겠다고 먼저 탈출한 것, 화물 과적으로 인해 대형참사로 이어졌다.

합수부는 사고원인을 다각도로 계속 규명해 나가고 있다. 세월호는 본래 건조 당시 객실정원이 840명이었는데, 후에 증축하여 956명으로 증원하였으며, 건조 당시 중량도 6,586톤에서 6,825톤으로 증가시켰다 한다. 항해를 시작하기 전 탑승객들에게 구명보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교육도 전혀 없었고, 구명보트 역시 거의 사용불가였다 한다. 거기에다 적재화물도 차량 180대, 컨테이너 화물을 쇠뿔줄로 묶지 않으므로 인해 배의 키를 급조회전 할 때 적재된 화물과 차량의 무게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배가 침몰하기 시작했다 한다. 결국 돈의 유혹에 눈이 멀어 화물 적재적량인 987톤보다 3배가 많은 약 3,788톤의 화물을 실었다는 것이다. 이런 총체적 부실의 주원인이 관피아, 해피아, 산피아들로 인하여 일어났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국가 시스템 전면적 개조", "국가 재난 안전시스템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개조론의 선구자인 도산 안창호 선생은 1919년 상하이에서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 참담한 현실을 이겨 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개조하여야 하겠소. 우리의 교육과 종교도, 심지어 강과 산까지도 개조하여야 한다"며 절규했다. 그는 지도층의 리더십, 국민 의식, 사회시스템, 국토 환경 모두가 개조대상으로 보았고, 추진 주체도 남이 아닌 바로 자신 스스로가 먼저 개조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세월호의 참사는 여기서 끝나서는 안된다. 남은 실종자 찾기, 배의 인양, 그리고 합수부와 정부의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 책임자 처벌, 재난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선박뿐만 아니라 나라의 구석구석까지 모든 안전시스템을 점검하고, 고쳐 더 이상의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급변 참사를 통해 정치인들, 공무원들, 종교인들, 심지어 기독교인들과 목회자들 모두 남의 잘못만 탓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흑사라도 내가 불감증에 걸린 환자는 아닌지도 확인해보아야 한다. 불감증이란 "감각을 느끼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환자가 몸에 병이 들어 환부를 꼬집어도 전혀 아픈 줄을 모른다면 그야말로 심각한 증상이다. 이처럼, 모두가 국가안보나 안전의 위기, 도덕적 위기, 경제적 위기상황임에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정쟁만 일삼거나 안일무사, 자기 이익 추구에만 몰두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초창기 한국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은 그들이 살던 시대의 백성들에게 민족의식을 일깨워주었고, 도덕적 타락의 회복을 위해 뼈를 깎는 회개 운동에 앞장서며 언행을 절제하며 삶의 본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공룡처럼 몸집이 비대해진 오늘의 기독교는 밀려오는 세속화의 물결 앞에서, 잘못된 신앙과 신학사조,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교회와 사회를 혼란케 하며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잘못되게 만들어도 무감각, 무대응, 무책임하며, 힘을 상실한 삼손처럼 되어가고 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성안의 사람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큰 심판이 있으리라"는 메시지를 전하자 왕과 온 백성들이 재를 무릅쓰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온 것처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 공무원, 온 국민들이 먼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애동하는 기도와 잘못된 삶을 고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역사, 나아가 통일 시대의 은총도 주실 것이다.

벼랑 끝에 내몰린 교회성장, 그러나 성장의 동력은 남아있다!

리더십저널, 클리프사이드교회의 성장과 자체위협 간 긴장해소방안 소개 (1)

성장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와 땀을 흘리는 노력, 뼈를 깎는 듯 한 고통, 희생적인 헌신의 밑거름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성장통(Growing Pain)이다. 본래 이 아픔은 사춘기의 청소년들이 겪는 삶의 과정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정체감의 위기(Identity Crisis)나 친구들로부터 받는 압력(Peer Pressure) 등을 통해서 청소년들은 어른이 되어가며 인격적으로 성숙해진다.

교회 역시 성장통을 겪는다. 담임 목사의 비전과 리더십에 따라 부임하거나 개척한 교회가 대형교회로 성장을 하게 되면, 반드시 발생하는 갈등과 위기가 오게 된다. 그러나 더욱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교회 성장이 교회 자체의 생명을 위협할 순간이다.

리더십저널은 열정과 패기로 가득한 젊은 목회자의 부

임으로 히스패닉 회중을 끌어안으면서 대형교회로 성장한 노스캐롤라이나의 '클리프사이드교회'의 성장통을 소개한다(The Growth at Cliffside):

What happens when growing pains become serious?

이 글을 통해 교회의 성장도 그냥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숙성의 과정을 통해 십자가의 고통, 변화를 통한 혼돈, 항복을 통한 순종 등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게 된다. 앞으로 수 회에 걸쳐 연재함으로 성장의 아픔 속에서 성장의 동력을 발견하는 목회자들 그리고 아픔을 피할 것이 아니라 이겨낼 때 보람과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목회자들이 많아지기를 바란다.

덧붙였다. 마침내 프랭크를 비롯한 모든 장로가 의견을 한데 모았다. 그 어려운 교회를 합병해 클리프사이드의 위성 교회를 세우기로 한 것이다.

다양한 민족회중 시도 새 교회개척에 이어 위성 교회 설립이라는 어려운 도전에도 성공을 거두고 나자 메이슨의 자신감은 더욱 높아졌다. 그는 한동안 구상해온 세 번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지역사회 의 인구 구조 변화로 다양한 민족들이 어울려 살게 되면서, 각급 학교에서 인종갈등이 고조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리프사이드교회는 여전히 인종적 단일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메이슨은 다양한 민족 구성원을 수용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도입하기로 했다.

먼저 한 한국인 교회에 클리프사이드교회 건물을 공유하도록 제안했다. 또 히스패닉 목사 두 명을 초빙해 스페인어 예배를 시작했다. 형제지간인 알레한드로와 카를로스는 합법적인 니카라과 이민자로서 미국에서 정식으로 목회 훈련을 받은

인터뷰를 마무리할 무렵 담임목사 청빙위원회는 그에게 교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해보라고 권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열정과 갈망으로 가득 찬 메이슨 해일은 새 담임목사와 함께 이루고 싶은 교회의 비전이 뭐냐고 물었다. 짧은 망설임도 없이 위원장이 대답했다. "남부의 새들백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메이슨은 그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는 아내와 네 자녀를 데리고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가장 빠



'남부의 새들백교회' 청빙위원회 목표에 새 담임목사 등의 위성교회개척과 지역소형교회 합병에 이어 다민족회중 시도

른 발전 속도를 보이는 카운티로 삶의 터전을 옮겼다. 그는 교인 400명의 클리프사이드커뮤니티교회를 남부 최대의 대형 교회로 성장시켰다는 사명감에 불탔다.

클리프사이드커뮤니티교회는 상당히 젊은 교회였다. 메이슨이 담임목사로서 처음 부임한 교회였음에도, 대다수 제자들이 그보다 어려웠다. 조만간 놀라운 부흥이 예상되는 교회였다. 메이슨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위성교회 개척

처음에는 모든 일이 순조로웠다. 젊은 가정들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다. 400명이던 교인 수가 7년 만에 1000명을 넘어섰다. 클리프사이드 교인들은 '뉴라이프펠로십'이라는 새로운 교회를 개척했다. 메이슨은 가장 신실한 장로 중 한 명인 제이콥 리드에게 새 교회의 목회를 부탁했다. 제이콥은 매우 지적이고 뛰어난 리더였다. 클리프사이드교회에도 꼭 필요한 인물이었지만, 메이슨은 그가 새로운 교회에도 꼭 맞는 사람임을 알았다.

그렇게 제이콥을 데려가신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메이슨의 교회

로 인도하셨다. 쇠락해가는 한 소형 교회의 리더들이 도움을 요청해온 것이다. 그들은 메이슨에게 간청했다. "우리 교회는 3년 동안 목회자도 없이 지내왔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조만간 교회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교인 수는 100명이 채 안 되지만, 하나같이 교회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클리프사이드에서 우리 교회를 합병해주실 수 있을까요?"

메이슨은 관찮은 아이디어라 생각하고 곧 장로들의 의견을 물었다. 내심 장로들도 이 어려운 교회를 지원하는데 동의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러나 장로들의 입장은 둘로 나뉘었다. 프랭크 몬트로스는 입을 굳게 다물고 눈썹을 치켜올렸다. 그는 늘 변화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프랭크가 말했다.

"저는 반대입니다. 먼저 그 교회가 그렇게까지 망가진 이유를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대니 스펜서가 열린 말을 받았다. "에이, 프랭크. 너무 의심하지 말아요. 목사님 말씀 들었잖아요. 그 교회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다는 데, 운이 나빴던 모양이죠."

프랭크는 쉽게 설득되지 않았다. "

우리가 그 교회와 합병을 하게 되면, 그 교회의 부채며 골칫거리를 전부 떠안아야 해요. 건물 하나 더 생기는 것 외에 그 교회가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된단 말입니까?"

메이슨은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었다. 대니가 대답했다. "그분들의 풍부한 경험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교회 어르신들의 지혜가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메이슨은 '그렇죠. 그분들은 결코 당시처럼 강박한 분들이 아닐 거요, 프랭크'라며 속으로 투덜거렸다. 그러고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리더들을 보고 판단컨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실 분들 같았어요"라고

뛰어난 목회자였다. 메이슨은 그들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메이슨은 장로들의 동의를 얻어 클리프사이드교회의 오전 예배와 같은 시간인 9시45분에 체육관에서 스페인어 예배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알레한드로가 설교를, 카를로스가 찬양 인도를 맡았다. 곧 클리프사이드교회로 히스패닉 교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메이슨은 다양한 인종들이 한 건물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메이슨은 생각했다. '남부의 새들백교회'라는 목표도 조만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호에 계속)

Advertisement for The Korean Christian Press,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for L.A. and N.Y. offices and a subscription form.

Large advertisement for Midwest University, featuring the university name, founding year (1986), website (www.midwest.edu), and details about degree programs (Bachelor, Master, Doctoral) and study options (On Campus, On-Line, Blended).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에는 어린이 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성년의 날 등 가정과 관계된 날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5월을 영어로 May라고 하는데 이 말은 청춘, 젊은이, 청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5월을 나머지 열한 달과 바꾸자고 해도 바꿀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5월에서 제일 먼저 찾아오는 날이 어린이날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아이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이 나오십니다. 여기서 어린이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문에서 몇가지 메시지를 주시니다.

아이들 음
10절에서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요단강 건너편 지역에서 사역 중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자 부모들이 아이들을 안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안수를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는 랍비가 오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안수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이에게 안수하는 것은 당시 유대교의 전례였습니다.

지 않았을지라도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학을 한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천국에 대한 소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14절). 그렇다고 천국이 어린 아이들만 가는 세상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말하자면 천국은 맑고 깨끗하여야 하고 정결하고 순전한 사람들이 가는 나라라는 점을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구절이 후에 유아세례를 베풀게 된 성서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아이들은 아주 어린 아이들이었던 모양입니다. 아주 순전한 모습의 아이들이 왔습니다. 제자들은 아주 어린 현재 모습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시했고 밖에 나가 있으라고 내쫓았습니다. 그런

다. 그래서 신명기서는 부모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인도하는 사명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신명기가 말하는 최고의 교육내용은 6장입니다. 네 자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가 무엇입니까?”하고 물으면 너는 출애굽과 광야생활 속에서 자신이 체험하였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해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는 것이 자녀교육의 핵심이고 그 교육이 가정의 중심을 이루고 국가구성의 힘이 되고 하나님 중심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순결신앙입니다. 신명기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새 세대에게 교육할 목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세 가지들 강조하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상숭배를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7:5, 12:2-3, 16:21-22)입니다. 가나안에는 오랫동안 형성된 가나안의 문화가 있고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가 바알종교였습니다. 그들이 생존과 적응을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그들과 타협하고 동화되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 삶에서 우상숭배를 그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상숭배자들을 멸절하고 불사르라(7:2, 13:12-16)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명령하신 이유가 20장 18절에 나타납니다. 철저히 배격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들 자신이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늘 세상과 하나되어 살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종을 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가나안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신7:3-4). 통혼은 피도 신앙도 섞여지는 위험이 있습니다. 통혼하면 신세대들은 그들의 문화에 쉽게 동화될 것입니다. 오늘도 신앙인이 불신인과 결혼하게 되면 이런 위험이 올 수 있습니다. 불신인의 문화에 빠져들거나 아니면 복음화하기 위하여 너무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동반된다는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왜 신명기서는 이렇게 아이교육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아이 때는 인격이 형성되는 때입니다. 그때 기초를 잘 닦아주어야 합니다. 그때 기초교육이 부실하면 평생 흔들리게 됩니다. 신앙교육은 아주 어려서부터 시켜야 합니다. 영혼이 순수할 때 하나님을 새겨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한 후에도 흔들림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해주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부모가 할 일입니다(신6:4-9). 그래서 예수님은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칭찬하시면서 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가정의 달 특집 칼럼



이정익 목사
(신촌교회 담임)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마가복음 10:13-16)

데 예수님은 그 아이들의 인격을 중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이 아이들이 모두 큰 인물들이 되리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인격체로 보았다는 말입니다. 아이들을 단장만 보면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의 먼 미래의 모습을 안다면 그렇게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양육 책임
하나님은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사명을 부모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들 메시지로 주시니다. 하나는 어려서부터 근본적인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신6:4-9). 즉 부모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40년 광야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평지에서 출애굽과 흥해를 모르는 새 세대들에게 교육할 필요성을 느껴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런 내용으로 세 번 설교를 했습니다. “쉐마”(6:4)입니다. 즉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오직 신앙대상은 하나님이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입니다.

여기서는 사랑을 명령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어려서 배우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큼니다. 어려서 배운 교육의 내용은 성장해서도 평생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

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으니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아이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갑자기 시끄러워졌을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아이들을 꾸짖고 내 보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른들의 당연한 행동입니다. 아이들은 작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아이들이 무시의 대상입니다. 교회에서도 교인수를 셀 때 어른 숫자만 셉니다. 당시에도 여인들이나 아이들은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의 용남
그런데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정색을 하시면서 대노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왜 아이들을 꾸짖고 그러느냐”고 하신 것입니다. 민도(民度)가 낮은 사회일수록, 국가일수록, 사람일수록 노약자나 아이들이나 부녀자나 장애인들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저개발 국가일수록 배려가 적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고철 점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이들을 무시하고 배려가 적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부모가 아이들을 때려서 시퍼렇게 멍든 아이들이 있고 심지어 사망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기 제자들은 아이들이 와서 시끄럽다고 꾸짖고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정색을 하시면서 “왜 아이들을 꾸짖느냐”고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여기 제자들은 아이들을 인격체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격이 완성된 되

특별기고

두 세월호



조진모 목사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

첫째 세월호(世越號)

지난 2014년 4월 16일 오전, 인천을 떠나 제주도로 가던 여객선이 진도 앞 바다에서 침몰되었습니다. 이 배에는 476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중에는 경기도 안산에 소재한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325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슴에 답을 추억으로 인해 부푼 마음으로 수학여행을 떠났던 길이었습니. 극적으로 구조된 일부를 제외한 수많은 생명들이 차가운 바닷물에 잠기는 비극이 발생한 것입니다. 목놓아 아들과 딸의 이름을 부르며 애타게 구조되기를 기다리던 부모들, 그들과 함께 대한민국은 모든 것을 멈추고 세월호의 수습과정을 가까이 지켜보았습니다. 실종된 아이들의 차가운 시신이라도 한번 끌어안기를 고대하는 가족의 심정으로 기적을 기대하며 그곳으로부터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세월호’는 말이 없다.

세월호(世越號)는 ‘세상을 초월한다’는 뜻을 담은 이름을 지닌 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누가 이런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파도가 많이 치는 바다를 이 세상으로,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는 배를 우리의 삶으로 비유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아마도 풍파 많은 이 세상을 초월하여 힘 있게 인생 항로를 달리는 배라는 의미가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이토록 당당한 이름을 지닌 세월호는 수많은 생명을 움켜쥐고 차가운 바다 밑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분명 세월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아무런 말을 하질 않습니다. 왜 세상을 초월한다고 자처하던 그 배가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야만 했는지 말해주질 않습니다.

사고 원인과 구조 과정, 그리고 세월호의 운영과 연관된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꼬리의 꼬리를 물으며 새로운 사실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분노와 좌절, 그리고 불신이 팽창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혼동에 빠져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확하게 답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세월호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세월호로부터 직접 말을 듣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세상을 초월하여 달리고 싶어 하는 그 배를 바다에 빠뜨리게 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 아마도 그들은 벌써 세월호의 입을 완전히 봉하기 위

한 작업을 시작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월호’는 말을 한다.
항로를 따라 미끄러지는 것을 포기 당하고 차가운 바다 깊은 곳에 빠진 세월호, 이 배는 우리 사회의 아픈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확대하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실시간으로 현장감 있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파선된 날부터 진도 앞바다를 지켜보던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향해 큰 소리로 절규하듯 외치는 세월호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럴싸해 보이는 사회의 구조 뒤에 숨겨진 실태가 어떤 지를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욕심과 이권을 소중한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어두운 마음을 지닌 자들의 횡포를 경계하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세월호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을 하는 듯합니다. ‘세상을 초월한다’는 뜻을 담은 세월호(世越號)라는 이름을 과감히 포기하노라고! 귀한 생명들, 특별히 미래에 대한 꿈으로 가득 찬 고등학교 학생들과 삶에 필요한 물품을 싣고 거친 파도와 싸우며 항해하는 책임을 다하기를 원했지만, 편안하게 밝힐 수 없는 비밀스런 일들을 한스런 가슴에 품고 이렇게 깊은 바다로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둘째 세월호(歲月號)

세월호(世越號)가 다시 바다를 헤치고 항해할 수 있다면, 과연 어떤 이름을 새롭게 붙여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장 머리에 떠오른 것이 세월호(歲月號)였습니다. 풍파 많은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초월이 아닌 현실 속에서 최선이란 목표를 향해 씩씩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임을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흘러가는 세월(歲月) 속에 이뤄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자녀여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멀고 험한 우리의 인생항로를 믿음으로 그분께 맡길 수 있습니다.

믿고 맡길수 있는 [하나님의 학교]

N.J. United Christian Academy

중, 고등학교(6학년~12학년)

당신의 자녀를 책임지고 훌륭하게 크리스찬 리더로 키우겠습니다. - NJUCA교사 일동



개교 10주년을 앞두고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훌륭한 크리스찬 미래 리더들을 좋은 대학에 많이 입학시키고 있습니다.

NJUCA 교육의 특징

- 기독교 교육이념에 기초한 지성(IQ), 감성(EQ), 영성(SQ)교육
- 헌신적인 교사들에 의한 친밀한 학생관리 및 상담
- 특별활동 및 봉사활동을 통한 이타적인 인재 육성
- SAT, TOEFL 수업을 통한 몇문대 진학 준비
- 한식과 중국식 음식을 제공하는 기숙사 환경

2014~2015 학년 신입, 편입생 모집중

- 대상: 6th ~12th
- 인원: 각 학년별 약간 및
- 전형: 서류 및 인터뷰
- 개강: 2014년 9월 5일
- 특징: 국제유학생에게 경신 I-20 발급

문의 (609)954-2900, (609)713-2121(영어)
73 Holmes Mill Rd. Cream Ridge, NJ 08514
www.njuca.org

NJ 크리스찬 아카데미 수양관도 새로운 시설과 서비스로 성도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예약을 서둘러 주세요.

원로칼럼



박종순 목사 (충신교회 원로)

나 때문에

요나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무차별 구원과 요나의 책임으로 대별된다. 앗수르 수도 니느웨야말로 심판받아 마땅한 도시였다. 도시의 죄악상이 그랬고, 민족 감정 역시 연민의 정을 뒤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그렇지만 그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요나와 달랐다. 갈등하고 고뇌하는 요나를 내몰듯 니느웨로 보내었고,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토록 재촉하셨다. 그러나 요나는 마지막해 길을 떠났을 뿐 다시스로 가고 있었다.

바로 여기서부터 가기 싫은 요나와 기필코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실랑이가 시작된 것이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은 강제노동이다. 하지못해 하는 일은 능률도 효과도 없다. 프로 선수는 일정한 돈을 받고 그라운드를 누비지만 아마추어 선수는 제 돈으로 옷 사 입고 운동장을 달린다. 프로는 책임이 뒤따르

지만 아마추어는 그냥 즐기면 된다. 요나는 전문가로 부름 받은 프로였다. 그래서 그는 제멋대로 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 그 사실을 요나가 깨달은 것은 풍랑 속에서였다. 풍랑은 인생을 깨닫고, 사명을 깨닫게 하는 풍학선생이었다. 책임의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요나가 드디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당신들이 이 풍랑을 만난 것은 다 나 때문이오"라고 직고할 수 있었던 것은 풍랑 덕택이었다. 그리고 그 시간부터 실타래처럼 얽혔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요나가 없다. 문제의 속 깊은 곳을 깨닫는 사람도 없고, 그 문제의 주범이 자신이라고 인정하거나 고백하는 사람도 없다. 역사가 꼬이고, 세상이 어려워도 누구 한 사람 "나 때문이오"라고 허리를 꺾는 사람이 없다.

저마다 "너 때문이다"라며 상대를 짓밟고, 매도하는데 열을 올릴 뿐이다. 결과는 뻔하다. 갈등, 투쟁, 대립, 분열, 증오로 치달을 뿐이다.

구상(具常) 시인의 "자수"라는 시가 떠오른다. "그 어린애를 치어 죽인 운전수도 바로 저구요/그 여인을 교살한 하수인도 바로 저구요/그 은행쟁 도주범도 바로 저구요/실은 미궁에 빠진 사건이란 사건의 정범이야말로 바로 저 올시다/(중략)이제 가까이 포승을 받으며 고요히 교수대에 오르렵니다. 최후에 할 말이 없나구요?/솔직히 말하면 죽는 이 순간에도 저는 최소한 4천만과 공범이라는 이 느낌을 버리지 못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렇다. 4천만은 공범이다. 우리 시대가 이렇게 파국으로 치닫게 된 것은 네 탓, 내 탓이 따로 없다. 4천만은 공범이며

천이백만의 방조로 빚어진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책임의 과녁을 자신에게 돌려 너 대신 나를 못 막은 대속사건이 아닌가.

세상만사가 꼬이고 얽혀도 단 한사람도 "나 때문에"라고 실토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나 때문이오"라고 말하면 자리에서 밀려나고 굴러 떨어질까 봐 겁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시스의 파국은 "나 때문이오"라는 고백으로 수습되지 않았는가?

"나 때문에"라고 말하는 지도자가 없다. 자존심을 챙기고, 책임 모면은 위해 사실을 늘어놓는 그런 사람들로써 풍랑도, 파국도 수습할 길이 없다. 요나 사건의 교훈은 현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며, 떠넘기기에 급급한 지도자들에게 내리시는 경고인 것이다.

푸/른/초/장

박조준 목사

(세계지도력개발원 원장)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보낸 편지 중에서 가정에 관해서 쓴 부분을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면을 다루었고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윤리적인 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반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말했고 후반부는 사람과 사람 사이 특별히 주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을 생각하며 은혜받고자 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해서 가정을 이루어 삽니다. 사람이 모여 사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기로 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데려오니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 하며 아담이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찌로다. 배우자와 연합한다는 것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의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인 피조물의 일부로 우리에게 남성과 여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시는 내적 표현의 일부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결혼으로 결합하

여 하나님의 완전한 이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배우자를 찾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남자가 결합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사는 부부를 향해서 성경은 자세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향한 권면에서 성경은 먼저 아내에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

회에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찌니라"(엡 5:22-24) 하였습니다.

여기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어떤 권위나 힘에 대하여 겸허하고 슬기롭게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통치에 복종합니다. 그렇다고 교회의 품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여성들은 이성적 말씀에 대하여 거부반응을 일으킵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게 지어졌

는데 무엇 때문에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얼른 들을 때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옛날 봉건제도 하에서 있던 말이지, 2천년전이나 사용되던 사상이 오늘에 와서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다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남자는 100이고 여자는 60이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남자도 100, 여자도 100으로 하

십니까?"하고 물으면 으레 "아무렴요, 물론 사랑하죠!"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 정도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은 자기 희생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엡5:25)고 말씀할 때 그는 분명히 "희생을 각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남편의 아내나 자녀에 대한 권위는 인간의 육적인 권위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희생에 뿌리를 박고 있는 거룩하고 신령한 권위"인 것입니다.

남편은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습니다. 남자는 강인하고 튼튼한 어깨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남자는 어떠한 압력에도 견딜 수 있는 정신적인 위대한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마음은 쉽게 낙담하고 쉽게 굴복합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가정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다른 데가 있어야 합니다. 집이 다른 것 아닙니다. 직업이 다른 것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정신적인 기초가 다르기 때문에 그 가정의 의미가 다르고 자연히 보이고 느끼는 분위기도 다릅니다.

성령이 교훈하는 대로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처럼 사랑의 원리에 의해서 영위될 때 그 가정은 틀림없이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가정은 사랑스럽습니다. 행복이 넘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에 뿌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신앙의 기반을 잃어서 가정이 흔들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죄악으로 빠져 들어가는 가정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지은 죄가 3, 4대까지 갑니다(출20:5).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나 부모가 가정에 대한 특히 자녀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큼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은 너무 좋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둬옵니다. 오늘 본문 6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세 가지 기본 명령이 있습니다. 사랑, 훈계, 가르침입니다.

오며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시키고 양육할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지식은 서적을 통해서 얻지만 지혜는 힘든 일을 통하여 배웁니다. 일을 통해서 배우는 지혜는 이동지혜(Transfer wisdom)라고 하는데 이보다 더 가치있는 일은 없습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를 잘 훈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인 엘리가 그의 아들들을 훈계하지 못했을 때 그 집에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였습니다. 잠언 13장 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심히 징계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채찍은 사랑의 방법입니다. 잠언 29장 15절에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언달할 자에게는 의의 영광한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를 채찍으로 하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돌보라고 말한 자녀들을 어떻게 했느냐? 너는 저들을 내 말대로 양육했느냐?"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과 바위에다 걸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넘쳐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가정과 다른 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 중심에 주님을 꼭 모시고 사세요. 틀림없이 행복하고 분되는 가정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

(에베소서 5장 22-27절, 6장 1-4절)

하나님의 구원계획

신·구약과 예언서인 다니엘서, 계시록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성경 세미나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 ① ② 하나님의 구원계획 구약 편, 신약 편
- ③ 칠십이레
- ④ 지금 이 시대의 말씀
- ⑤ 하나님의 구원계획 도표
- ⑥ 다니엘
- ⑦ ⑧ 꼭 읽어야 할 말씀 요한계시록 상·하



주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강사: 리흥채 목사 ○장소: 뉴욕 제자들교회 교육관
○일시: 매주 목요일 저녁 8:30 ○전화: 718-224-1993, 917-968-1024



▲한국과 일본에서 세미나 인도하는 리흥채 목사



리흥채 목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1962. 3-1968. 2)
미국 '테네시' 성유회에서 13년간 근무(1972. 7)
미국 휴스턴 신학교(1986. 7)
미국 베다니 신학교 석사과정 수료(1992. 6)
미국 베다니 신학교 박사과정 수료(1993. 6)
미국 베다니 신학교 신학박사(D.D)(1996. 6)
뉴욕으로 이주, 뉴욕민권교회 설립(1996. 9)
뉴욕제자들교회 담임목사(2014. 현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분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찾고 계십니다.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성경을 통하여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지금이 회개하며 올바른 진리에 눈과 귀를 열 때입니다.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때가 곧 도둑 같이 임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때가 매우 가깝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 계획" 도서 시리즈와 세미나를 통하여서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뉴욕제자들교회 주소 : 39-50 Douglaston, Pkwy., Douglaston NY11363

구입처 뉴욕제자들교회 또는 각 지역 서점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현대는 누가 보기에든 재난의 시대이다. 세계적인 재난과 수많은 위기가 오고 있다. 대한민국 세월호 참사 이후 수습이 되기도 전에 연달아 일어난 다른 사고들로 인하여 위기의 쭉나미들이 오고 있다. 위기를 맞이할 때 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에서 뼈아프게 다시 확인한 것은 위기 중에서 참다운 위기관리 능력을 가진 리더십의 부재이다.

세월호에서는 리더가 존재하지 않았다. 책임져야 할 선장은 스스로 리더 되기를 포기했다. 세월호의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진정한 리더가 보이지 않았다. 한국정치의 실종은 리더의 실종이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문제는 이것을 극복할 리더가 없음에 있다. 지금까지의 경제이론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세계적으로 국제적인 긴장과 위기들이 일어나지만 이것을 해결할 세계의 리더도 찾아가기 힘들다. 심지어는 교회의 위기 상황에도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라서 문제를 풀어가는 리

이론이다. 일방적 의존은 너무나도 귀중한 선택의 자유를 포기하고 그 대가로 가짜 안정감을 얻고자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5)반항이다. 다른 사람들과 정반대 결정을 내림으로써 자신이 겪고 있는 불안정한 현실을 숨기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은 먼저 남들이 뭘 하는지 지켜보고 난 다음에야 결정을 내릴 수 있다. 6)기회주의이다. 이런 사람들은 동시에 동쪽과 서쪽으로 가려고 노력한다. 실제로 형세를 관망하는 미숙함의 표현이다.

7)과거에 대한 향수이다. 과거에 '했더라면' 하는 생각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오늘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려운 결정을 회피한다. 세월호 참사와 그 대처에서 나타난 특징들과 너무도 정확하게 연결된다.

세월호 참사와 수습 과정에서 온 국민의 분노를 산 '위기 중의 리더십의 부재'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2012년 하버드대학의 케네디스쿨에서 실시한 '미국인의 리더십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미국인들의

의식(5%)이었다. 이번 조사 중에서 독특한 것은 다른 그룹과 달리 복음주의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대한 열정으로(83%) 인식했다.

이런 인식의 차이는 의미심장하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성도들과 차이,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복음주의자들의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리더에 대한 기대와 추구하는 지도자 유형의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성도들도 하나님께 대한 열정보다도 통전성을 더 중시하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지도자는 가르침과 생활이 같은 투명한 리더십이었다. 그것은 그런 지도자들이 많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어떻게 보면, 지도자들을 향한 성도들과 세상의 지적인 것을 느끼면서 부끄럽고 마음이 아프다.

위기시대에 사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위기 중의 리더는 누구인가?

성경은 위기 중의 리더십에 대한 수많은 예들을 제시하고 있다. 성경 중의 리더들은 모두 위기 중의 리더들이다. 아브라함은 롯이 그들과 오멜 동맹군에 잡혀갔을 때에 뛰어난 리더십으로 기습작전을 통해서 승리한다. 모세는 애굽의 극한 압박 아래에서 노예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위기 속에서 구원하여 출애굽

했지만, 첫째는 예수님의 리더십은 희생적인 리더십이다.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자신의 희생으로 자기 양들을 구원한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비하는 모두 희생의 여정이다. 그 절정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다. 예수님은 고난을 결코 회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감당하셨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리더십은 사도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진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여주신 생생한 교훈과 모범이었다. 그래서 스테반과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이 그 길을 갔다.

하지만 예수님의 희생적인 리더십은 오늘날 목회자들이 우리도 매우 힘들어하는 취약점이다. 우리가 성공지상주의에 빠져 편안과 안일을 선호하면서 고난과 역경을 할 수만 있으면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아닌가? 희생적인 리더십은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자신의 명예와 지위와 권세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자기를 희생하여 다른 사람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둘째로, 예수님의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이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사시고 심지어는 생명을 주시면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E-Mail: lakwpc0316@gmail.com

Q: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성경의 예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토렌스에서 이희은

A: 우리 인생살이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2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초를 두는 것, 즉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시 125편 1절 같이 "시온 산이 요동치 않고 영원히 있을 같이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더 튼튼히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정입니다. 가정이 건강하고 튼튼해야 그 위에 모든 것을 든든히 세울 수 있습니다. 가정이 빠져대면 모든 것이 빠져떨어집니다.

이번에 세월호 참사로 배가 기울어질 때 한 여학생이 아빠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는 "아빠 사랑해..." "사랑한다"는 메시지가었습니다. 이번에 이 일로 온 한국의 온 국민들은 자녀들의 죽음을 앞에 올렸고 마음에 상처가 남았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로 한국 국민들은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가족애"입니다. 내게 주신 가정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교육으로 키워야

첫째, 모세와 같이 어릴 때부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강하게 심어 주어야 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유대남자아이기가 나면 다 나일 강에 빠뜨려 죽여야 하는 필박시대에 자녀인 모세를 낳았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울음소리가 커져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어 나일강 갈대사이아에 두었습니다. 때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발견하여 자기 양자로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의 공주가 구한 유모가 바로 모세의 생모인 요게벳이었습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맡아 기른 시간은 길어봐야 5-6년입니다. 요게벳은 얼마 안 있어 아이를 돌려줄 때가 올 줄을 알고 자기가 임시로 맡아 키우는 동안에 자기 아들 모세에게 너는 하나님을 믿는 선민인 히브리 민족임을 가르쳤고 히브리 민족의 독특성과 여호와의 신앙교육을 받았으므로 가르쳤습니다. 한마디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 백성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심어준 것입니다.

둘째, 사무엘처럼 교회에서 키워야 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원래 자식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에 가서 눈물로 아들 하나 주시기를 간구하여 낳은 자식이 사무엘입니다. 얼마나 귀한 자식입니까? 그런데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떼자 곧 그를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여호와의 집 곧 오늘의 교회에서 주의 종들의 말씀의 양육을 받으며 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깨닫기 큰 것입니다.

셋째, 디모데처럼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키워야 합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니게는 남편이 이방 헬라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그의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자라났습니다. 그가 청년이 되었을 때 바울이 제 2차 선교여행에서 바울을 만나 바울의 조수가 되고 선교사역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후에는 바울을 닮은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운 말씀 덕택입니다.

토기장이가 쓸모있는 그릇을 만들려면 진흙이 말랑 말랑할 때 빚어야 합니다. 나무나 플랜트도 줄기가 가늘 때 썩이나 새순이 돋을 때 바로 방향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말씀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이 단단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새겨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위기, 위기 중의 리더십 부재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 김혜천 목사



더가 없다.

사실 우리가 누리는 삶의 질은 우리가 내리는 결정의 질에 달려있다. 사람들은 결정을 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데 결정의 시기를 놓친 우유부단한 결정은 우리에게 좌절을 가져오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 세월호 참사도 초기 대응의 황금시간을 놓쳐 버리니까 대형 참사로 확대된 인재였다.

Theodore Rubin 박사는 사람들이 흔히 선택하는 전형적인 잘못된 결정을 pseudo decision이라고 부른다. 이런 사이버 결정, 유사결정들은 사람들이 마음을 정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반응들이다.

1)결정을 연기하는 것이다. 결정을 연기하면 일을 성취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2)주저함이다.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항목이 모두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거나 어느 것도 완벽하지 않다고 느낄 때 주저하게 된다.

3)충동이다. 충동적인 결정은 공포, 걱정, 죄의식, 또는 지루함을 덜어보기 위해 무엇이든 하지 않을 수 없어서 결정하는 절망적인 시도인데 언제나 재앙을 부른다. 4)일방적

리더에 대한 인식조사를 보면 미국인의 69%가 미국은 리더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인들의 70%는 더 좋은 리더가 나타나지 않으면 미국은 내리막길로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미국인들의 68%가 현재 미국을 이끄는 각계 각층의 리더들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인식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는 더 심각하다. 미국의 성도들은 교회도 심각한 리더십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느낀다. 2013년에 바나리서치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의 성인 성도들 중에서 82%가 미국이 지도자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것은 일반인들의 위기의식보다 더 심각하다.

리더의 자질에 대하여 물었다. Catalyst Conference의 대표인 Brad Lomenick과 함께한 조사에 의하면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로 통전성integrity(64%)을 들었다. 그 다음은 진정성(40%), 훈련(38%) 등이었다. 주목할 것은 이런 세 가지 자질을 하나님을 향한 열정(31%)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리더의 자질은 겸손(7%) 과 목적

지향(5%)이었다. 이번 조사 중에서 독특한 것은 다른 그룹과 달리 복음주의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대한 열정으로(83%) 인식했다.

이런 인식의 차이는 의미심장하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성도들과 차이,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복음주의자들의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리더에 대한 기대와 추구하는 지도자 유형의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성도들도 하나님께 대한 열정보다도 통전성을 더 중시하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지도자는 가르침과 생활이 같은 투명한 리더십이었다. 그것은 그런 지도자들이 많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어떻게 보면, 지도자들을 향한 성도들과 세상의 지적인 것을 느끼면서 부끄럽고 마음이 아프다.

위기시대에 사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위기 중의 리더는 누구인가?

성경은 위기 중의 리더십에 대한 수많은 예들을 제시하고 있다. 성경 중의 리더들은 모두 위기 중의 리더들이다. 아브라함은 롯이 그들과 오멜 동맹군에 잡혀갔을 때에 뛰어난 리더십으로 기습작전을 통해서 승리한다. 모세는 애굽의 극한 압박 아래에서 노예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위기 속에서 구원하여 출애굽

서까지 섬겨주셨다. 자적 겸은 인생들이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이것이 진정한 생명을 얻는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으로 제시해주셨다.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하나님인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모든 질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함으로 섬기셨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 낮춤으로 섬겨야 할 것인가?

오늘의 진정한 위기는 위기 중에서 이끌 리더의 부재로 오는 위기이다. 성경에서 보여주신 환난 중의 리더십, 위기 중의 리더십이 더 목마른 것은 과연 나 혼자만 느끼는 지극히 개인적인 목마름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느헤미야처럼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가고, 마침내 예루살렘의 성벽을 성공적으로 세우는 '위기 중에서 진정한 성경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간구한다.

▲이메일: revdavidkim@yahoo.com



청교도복음연구회 제 4회 정기세미나

주제 : "청교도와 설교"

- 일시: 2014년 6월14일(토) (10: 00 AM-4:00 PM)
- 장소: (1) The Old Dutch Church of Sleepy Hollow (in Territown) 430 North Broadway, Sleepy Hollow , NY 10591
- (2) 은혜와 사랑의 교회 181Harrison Ave., Harrison, NY 10528
- 대상: 목회자및 전도사,신학생
- 회비: \$20 (교재비) - 차비, 식비: 무료
- 일정: 10:00 AM 공영주차장(우리은행앞) - 11:00 AM - 예배 및 투어 점심, 이동 - 1: 00 PM 은혜와 사랑교회에서 세미나 3:00 PM뉴욕으로 출발 4:00 PM 도착

| | |
|-------------------|--------------------------|
| 칼빈의 신학과 설교(예배 설교) | 윤성태목사 (UTS 교수) |
| 리처드 백스터의 목회적 설교 | 김필식목사 (영림교회담임, UTS학장) |
| 조난단 에드워드 설교의 특성 | 최기성목사(은혜와 사랑 교회담임,UTS교수) |
| 찰스 스펀전 설교의 특성 | 이창중 목사 (동서교회담임, UTS교수) |
| 청교도 설교와 플립 인테리어 | 김경옥전도사(청교도가정사역원원장, 화가) |

연락처: 청교도복음연구회 총무 이창중목사 (917) 399-6754, (718) 939-8278, (917) 251-3039

급변하는 21세기에도 청교도가 필요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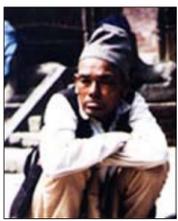
무엇이든 뜯어고치는 것이 갱신일까? 청교도는,초대교회의 원리에 충실하였고 오직 성경을 근거로하는 종교개혁자들의 교훈을 토대로 개혁교회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실천적 삶을 실제로 살았던 무리이자 운동입니다.

17세기 청교도들, 오히려 혼탁한 오늘날에 더욱 필요한 신앙의 삶의 모범이었기에 그들의 삶과 신학과 신앙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일은 청교도에 대한 수많은 오해와 선입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익하다고 하셨습니다. 올해는 "청교도와 설교"라는 주제로 1685년에 세운 발코니식 플랫이 있는 가까운 옛 화란교회(Dutch Reformed Church)도 보고 발표회를 갖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교회들이 성장을 외치느라 개교회주의로 흘러간혀있는 틈을 타서 WCC나 이단이 불건전한 연합을 크게 외치는 이때에 건전한 교회들의 연합이 오히려 절실합니다.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네팔의 네팔족(Nepalese)



네팔족은 동부 파하리족(Pahari)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들은 네팔 지역에 주로 많이 살고 있는 종족이다. 그들은 국가의 공식 언어인 네팔어를 사용한다. 네팔족은 북부 인도인들과 비슷한 인종, 문화 그리고 언어를 사

용한다.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은 또한 인도의 상위 힌두 카스트제도를 모방해 만들어졌다. 대부분의 네팔족들은 구릉지대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 살고 있으며, 긴 여행도 걸어 다닌다. 그들은 활동적이며 유머와 재치가 있으며 자부심이 강하다. 그들은 주로 세 그룹인 브라만(Brahmans: 성직자, 학자), 카하트리아스(Kahatriyas: 통치자나 군인), 아추트(Achut: 노동자나 노예들)로 나뉜다. 아추트는 불가촉천민(Untouchables: 인도의 최하층 천민)

으로 그들은 힌두의 다른 계급에 의해서 불결한 것으로서 간주되며 힌두 계급에서 제외된다.

삶의 모습

대부분의 네팔인들은 농부로 강가에 위치해 있는 작은 부락을 이루어 살고 있다. 그들의 마을들은 농지를 중심으로 작은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가난한 가족들은 농토를 소유할 수 없다. 중남부 네팔 지역에서 토지는 여러 세대에 걸쳐 계단식으로 개간됐다. 벼는 몬순계절 동안 재배되며, 밭벼, 옥수수, 수수, 밀은 여름과 겨울에 보다 건조한 토지에서 재배된다. 또한 네팔인들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채소밭을 가꾼다. 대부분의 농민들은 우유를 얻기 위해 소를 키우고, 고기를 얻기 위해서 버팔로와 염소를 키운다.

마을은 일반적으로 강이나 샘 근처에 자리잡고 있고 집은 좁은 길로 연결돼있다. 때로 그 길은 마을의 가장 커다란 나무로 이어지기도 있는데, 이 나무는 마을사람들을 위한 모임 장소뿐 아니라 여행자들을 위한 쉼터로 사용된다. 중요한 사원이나 수도원이 위치해 있는 더 큰 마을도 있다.

가옥은 일반적으로 양철이나 이엉지붕과 진흙벽돌로 만들어진다. 가옥의 아랫쪽 하반부에는 붉은 진흙이 발라져 있고 상반부에는 흰색으로 칠해져 있다. 집은 일반적으로 2층 이상으로 지어진다. 부엌과 거실의 위치는 2층에 위치해 있어 집 주변을 돌아다니는 동물들로부터 나온 오염물을 피할 수 있도록 돼있다. 대부분 집에는 배를 짜는 것과 같은 자질구레한 일과 함께 가족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앞마당이 갖춰져 있다.

지주나 노예나 관계없이 네팔족

의 어린이들은 잘 양육되는 편이다. 아이가 2-3세가 될 때까지 모유를 먹이며, 아이들에게 첫쌀 음식과 첫머리 자르기와 같은 많은 통과례가 있다. 또한, 소녀들은 사춘기 의식을 통과하며 소년들은 "신성한 실 의식"(sacred thread ceremonies, 목에다 실을 묶어서 일생을 행복하게 지내기를 기원하는 불교 또는 힌두교의 의식)으로 알려진 입문식을 통과한다. 8살쯤에 아이들은 가정의 허드렛일을 하기 시작한다. 소년들은 자기보다 어린 아이들을 돌보고 물을 길으며 가족들을 먹인다. 또 소년들은 대개 가족들을 지키며 돌본다.

네팔 소녀들은 전통적으로 10살이 되기 전에 결혼한다. 지금은 약간 늦어졌지만 어렸을 때 성숙해지면 과 함께 가족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앞마당이 갖춰져 있다.

네팔은 왕을 힌두신, 즉 비쉬누(Vishnu: 세계의 보호자)의 화신으로 추앙하는 힌두왕국이다. 비록 대부분의 네팔인들이 힌두교인지만 무슬림과 불교신자들도 많이 있다. 전통적인 애니미즘(비인간적인 존재가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지방신, 악마, 영혼을 인정한다. 그들은 또한 교차로나 강 주위에 악마와 귀신이 있다고 믿으며, 그들의 영혼을 달리기 위해 제물을 바친다.

필요로 하는 것들
13개의 선교단체가 지금 이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지만 선교의 진도는 더딘 편이다. 네팔에서 단지 1%의 네팔인들만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 기도만이 그들에게 복음과 함께 다가서는 열쇠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공공기관 개회기도는 관행”

미국 대법원은 5일 시의회 등 각종 주민회의(타운미팅) 시작 전 기독교적 기도를 올리는 것에 대해 찬성 5, 반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국의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이 기독교적 기도를 하는 것을, 무신론자나 타종교인이 더 이상 문제 삼을 수 없게 됐다.



뉴욕주 로체스터 인근 그리스 마을 주민 3명은 타운미팅 때 기도를 안내해줄 성직자를 기독교도로 국한한 것은 위헌이라며 소송을 냈다.

5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비기독교인을 폄하하거나 개종시키려 하지 않는 한 지방정부의 공공 모임에서 특정 종교의 기도를 올리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개회 기도는 오랫동안 지켜져 온 관행으로 우리 유산과 전통의 일부가 됐다”며 “국가가 특정 종교를 강요할 수 없도록 한 수정헌법 1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성경 속 ‘다윗왕의 성채’ 찾았다”

이스라엘문화재청 출신 이스라엘 고고학자 동예루살렘에서 성경 속 다윗왕이 정복한 성채(citadel)를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영유권 논쟁이 재점화됐다고 AP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엘리 슈크론은 1995년부터 올해 초까지 동예루살렘 전역에서 발굴을 진행해 5톤짜리 돌이 6m 간격을 두고 쌓인 형태의 대형 요새를 발견했고 그 생성 연대가 다윗왕이 시온산성을 정복한 시점으로 알려진 기원전 1000년보다 800년 앞선 기원전 1800년 무렵이라고 밝혔다. 또 이곳에서 출토된 도자기 조각 중 2개가 다윗왕 왕복시절에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고 이외 다량의

조각은 이후 100년 후의 것으로 다윗의 후손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요새 주위에 난 좁은 수로는 다윗의 군사들이 수로를 통해 시온성 안으로 들어가 요새를 점령한 성경의 내용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슈크론은 “이것은 다윗왕의 성채(citadel)이자, 시온의 성채이고 또 다윗왕이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취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이런저런 뒷말을 낳고 있다. 2008년까지 슈크론과 공동 발굴 작업을 했던 고고학자 로니 리흐는 출토 도자기 조각 중 극히 일부가 다윗왕 정부 시점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로 제시됐으며 그 지역이 다윗성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기에는 근거가 미약하다고 비판했다.

일부 고고학자들은 슈크론이 유대인 국수주의단체 ‘엘레드 파운데이션’의 지원으로 이번 발굴을 진행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지위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동예루살렘의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무리한 논리를 펼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엘레드 파운데이션은 동예루살렘의 아랍인 거주지역에 유대인 이주·정착을 돕고 있다.

이스라엘 고고학계에서 성서 해석을 바탕으로 분쟁 지역의 영유권 주장을 펼친 것은 처음이 아니다. 히브리대학·이스라엘문화재청 공동 고고학팀은 2013년 7월 다윗왕의 궁전(palace)으로 추정되는 유적을 발견했다고 밝혀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6-7세기 추정 예수 초상화 발견

이집트의 고대 무덤에서 6-7세기쯤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예수 그리스도 초상화가 발견됐다고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이 최근 보도했다.



바르셀로나대학과 카탈로니아고고학회, 몽펠리에 대학의 고고학 연구팀은 최근 이집트 나일강의 고대 유적지 옥시링쿠스에서 지하 건축물을 발굴하면서 직사각형의 무덤 여러 기(基)를 찾았다. 돌무더기 45톤을 파내며 찾은 여러 출토품 중에서 단연 이목을 끈 것은 한 젊은 남성의 모습이 벽화였다. 공동연구팀장인

조셀 페드로 바르셀로나대학 명예교수는 “곰살머리에 튜닉(소매 없이 무릎까지 내려오는 헐렁한 옷)을 입은 남성이 손을 들고 누군가를 축복하는 듯하다”며 “우리는 이 모습이 예수를 형상화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림 속 묘사가 초기 기독교 교회사에서 추측한 예수 모습과 비슷하다는 점과 사제들이 이 무덤에 묻혔다는 것도 초상화 속 인물이 예수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페드로 교수는 20년동안 이 일대에서 발굴 작업을 해왔다. 그는 “이번에 출토된 그림은 가장 오래된 예수 초상화 중 하나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무덤에서는 금속 성분이 포함된 안료와 안료 보관 단지, 붓으로 사용된 막대 2개도 나왔다.

미국인 53%가 ‘선거에 소극적’

선거에 소극적이라는 입장을 보이는 미국인의 비율이 20년 만에 최고치인 53%로 나타났다. 12일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비율은 선거에 적극적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 35%보다 18%포인트 높은 것이다.



갤럽 조사에서 선거에 소극적이라는 응답자의 비율은 1994년 45%를 기록했다가 2010년 37%까지 꾸준히 하락해왔다. 이번 조사에서 선거에 대해 얼마나 많이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꽤 많이’ 또는 ‘약간’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의 합계는 26%로 2010년의 37%나 2006년의 28%보다 낮았다.

지지 정당별로는 공화당 성향 응답자 가운데 ‘적극적’인 사람이 42%, ‘소극적’인 사람이 50%였다. 민주당 성향인 사람 중에서는 적극적이라고 답한 사람이 32%였고 소극적이라는 의사를 표한 사람은 55%였다.

갤럽은 “선거에 적극적인 지지자를 더 많이 가진 정당에 중간선거에서 우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며 “1994년과 2002년, 그리고 2010년에 공화당이 하원에서 우위를 점하는 상황과 연결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갤럽은 “올해 조사에서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도 적극성을 가진 유권자의 비중이 높지 않으므로 지금 상황이 공화당에 꼭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미국인 1천

51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다.

영국성공회 대주교, 보코하람과 적극적 협상 촉구

나이지리아의 극단적 이슬람 무장단체인 보코하람이 200여명의 10대 여학생을 납치한 사건과 관련, 영국성공회 저스틴 웰비(Justin Welby) 대주교가 비판성명을 발표하고 그들과의 적극적인 협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나이지리아 무장단체들과 협상에 참여했던 웰비 대주교는 12일 “협상은 분명히 어려울 것이나, 시도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학생들은 매우 이질적인 이들에게 붙들려 있다. 이들은 극도로 비이성적이며, 대하기 어려운 상대다. 과거의 사례를 볼 때, 이들은 매우 무자비했기 때문에 우려가 크다. 협상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만,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웰비 대주교는 “극단주의 단체들의 지도층에도 다양한 그룹이 있다. 모든 지도층들과 적극적인 협상과 계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이지리아 기독교인들에 대한 보코하람의 공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대해서는 “나이지리아 기독교인들은 스스로와 아이들, 가족들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기독교적 가르침의 핵심은 ‘원수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원수들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보기”라고 말했다. 웰비 대주교는 지난 5월 7일에도 성명을 통해 “이는 끔찍하고 용서할 수 없는 행위로, 어린 학생들과 가족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4일 나이지리아 북쪽 지역인 보르노주 치북에 위치한 중학교에서 200여명의 여학생들이 보코하람에 의해 납치됐다. 현재까지 276명이 실종된 상태로, 이들이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캠페인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트위터상에는 #Bring-BackOurGirls(우리의 소녀들을 보내주세요)’라는 태그가 확산되고 있으며, 미셸 오바마를 비롯한 정치인들과 앤 해서웨이, 안젤리나 졸리 등 유명 연예인들이 이 캠페인을 지지하고 있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On Campus Courses

본교 소개 및 특전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2. 미국에서 유일한 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과정

목회학 박사과정(D.Min.)
선교학 박사과정(D.Miss.)

2014년 5월 본교 강의안내

May 12-16(5월 12 -16일)

DI 8020 Cultural Anthropology(문화인류학)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om Stallter

May 19-23(5월 19-23일)

DI 8280 Methods of Social Research(사회조사방법론)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om Stallter

PM8030 Gospel Centered Ministry(복음중심사역)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Matthew Harmon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졸업식 안내

일시: 2014년 5월 10일(토) 오전 9시
장소: 본교 Manahan Orthopaedic Capital Center

졸업식 리허설(Graduation Rehearsal)

○ 일시: 2014년 5월 9일(금) 오전 8시 30분
○ 장소: 졸업식 장소
(졸업예정자는 전원 참석해야 하며 정장차림을 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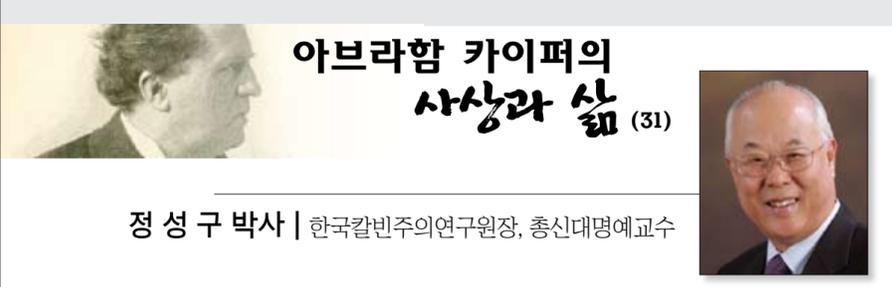
총장주관 졸업만찬(President's Luncheon)

○ 일시: 2014년 5월 9일(금) 12:00-1:30pm
○ 장소: 웨스트민스터 홀(Westminster Hall)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31)

정성구 박사 | 한국칼빈주의연구원장, 종신대명예교수

은퇴 없는 반세기의 정치가 카이퍼

카이퍼는 1920년 11월 8일, 83세를 일기로 주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현역 정치가로 일한 셈이다. 그는 4년의 수상직을 화려하게 일하고 영광스럽게 임무를 마쳤다. 좌파들이 선동한 철조노조 파업을 잠재우고, 가장 전국민의 관심사였던 교육법을 개정하고 주류법을 고치고 사회안전법을 구축하고 가난한 자 병든 자 등 소외 계층을 위한 알뜰한 보살핌이 있었다.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도전과 저항이 있었지만 카이퍼 특유의 확신과 리더십으로서 반대파를 잠재우고 특히 감화력과 호소력을 가진 천재적인 연설로 대중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래서 화란 국민들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었다.

하지만 야당들은 카이퍼에게 학문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적수가 못되었던 반대파를 곧 사회주의자들과 진보정당들은 카이퍼를 향해서 개인적으로 또는 조직적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비난으로 그들의 마음을 달랠다. 그 당시에는 카이퍼에 대한 풍자만화가 많았고, 이 풍자만화들 때문에 카이퍼의 부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갔다고 되었다. 한편은 출판업자가 카이퍼의 풍자만화를 모아

비판 만화를 단권으로 출판하려고 카이퍼에게 문의했을 때, 카이퍼는 가까이 허락을 했다. 어쨌든 카이퍼는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도 많았지만 동시에 그에게 패배의식으로 말미암아 술한 비난의 화살이 날아왔다. 이는 16세기 요한 칼빈의 경우와 흡사했다. 칼빈의 논리적 글과 그의 논리적 언변을 아무도 당할 수 없었으므로 로마가톨릭이나 리버티파, 야당 지도자들이 그에 관한 엄청난 비난과 비판에 적대감이 있었던 그와 비교될 수 있다.

카이퍼가 수상직에 물러난 후 일 년동안 여행을 한 후 많은 견문을 넓히고 귀국했다. 그는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았고 명연설을 했다. 1908년 8월 31일 빌레미나 여왕 생일에 카이퍼 박사는 헤임스켈크 내각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평의회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국가평의회장은 국왕에게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에 그것을 심사하고 건의하는 기관이다. 그 기관에

장관이던 일종의 국가원로회의 장관과 같았다. 하지만 좌파 언론들은 그들의 독자에게, 카이퍼가 정치일선에서 물러날 때가 됐다고 암시를 했다. 사실상 오랫동안 자유당과 사회주의당은 카이퍼에게 늘 패배를 마셨던 터라 내심 카이퍼가 속히 사라졌으면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렇지만 1908년 10월 옴멘지역 보궐선거에서 카이퍼는 다시 하원의원이 된다.

카이퍼는 다시 정치일선으로 복귀했다. 카이퍼는 언제나 뉴스를 몰고 다니는 정치인이었지만 또다시 언론에 집중조명을 받았다. 자기 자신이 언론을 주도하는 발행인이요 주필이요 논설주임이었다. 그 해 12월 카이퍼는 다시 반혁명당의 총재로 복귀한다. 물론 카이퍼가 당 총재자리를 비었을 때, 카이퍼와 일생동안 학문의 동지자였고 개혁주의신학의 보루였던 헬만 바빙크(Herman Bavinck)가 당수로 일을 했다. 그렇지만 바빙크 박사

는 그 자리가 자기 자리가 아니고 카이퍼가 복귀할 경우 언제든지 자리를 내어줄 참이었다.

카이퍼가 당수직에 복귀한 그해는 1909년 요한 칼빈 탄생 400주년 되는 해였다. 카이퍼는 “우리 칼빈주의자들”(Wij Calvinisten, 1909)이란 제목으로 연설을 하면서 반혁명당 전당대회를 열었다. 그리고 그해 선거에서 우파의 승리가 되었다. 그것은 사실 카이퍼 박사의 승리이자 그의 결출한 리더십 때문이었다. 그때 카이퍼는 재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카이퍼는 이미 71세가 되었다. 카이퍼의 영향력은 예전만 못했고 도전자들의 세력도 만만치 않았다. 그런 때에 카이퍼는 그의 정치적 후계자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은 성공적이었다.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노정치가의 숨겨

를 의미한다.

카이퍼는 야당들의 권모술수, 비난과 협박이 많았지만 그는 흔들림이 없이 사명에 충실했다. 카이퍼는 노인이 되었지만 그의 정치적인 영향력은 아직도 대단했다. 그것은 후계자를 세워 그의 사상을 계승하게 했을 뿐 아니라, 결정적 난제에 부딪힐 때마다 그 우렁찬 감동적 연설로 상대방을 잠재웠고 평정해 버렸다.

카이퍼는 과거의 역사적 사건에 철저히 기초했지만 과거의 족쇄에 매여 있지 않고 항상 미래 지향적으로 새로운 대안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감을 개발해 나갔다. 그러므로 카이퍼는 거룩한 이상주의자였다. 그리고 카이퍼는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정치가였다. 카이퍼는 1913년 4

중단되었으나 카이퍼의 빛은 아직도 꺼지지 아니했다. 그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도 그가 윤연하고 있는 스탠다드지에 53개의 논설을 쓰고 반혁명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위로, 격려, 독려하며 희망과 꿈을 주었다. 이 말은 아직도 노 정객은 죽지 않고 살아서 개혁주의 사상을 지휘하는 선봉장이 되었다.

실제로 카이퍼는 그가 죽는 순간까지 붓을 놓지 않았을 뿐더러 신문의 논설이나 명상록 등은 다시 크고 작은 책으로 출판되었고, 이것은 잠자는 국민을 일깨우고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었다. 카이퍼는 그래서 종신 상원의원이 되었다. 또한 카이퍼는 철저한 칼빈주의자이며 칼빈 이후 최대의 칼빈주의자로 불리면서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부르짖었다. 카이퍼는 칼빈주의가 기독교 신앙은 말할 것도 없고 삶의 모든 영역에도 적용되는 전 포괄적 세계관을 힘주어 말했다.

카이퍼는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깨우치고 영원에 이르는 확실한 빛을 비추어 줄 뿐 아니라, 성경은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 빛이 되고 길이 된다고 힘있게 증거했다. 카이퍼의 삶은 칼빈주의 사상과 관계없는 것이 없었듯이 그의 정치적 삶도 결코 중단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 가장 먼저라면 구속함을 받은 자의 삶은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한다. 그래서 정치도 결국 그리스도인의 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호에 계속)

1908년 보궐선거에서 다시 하원의원 선출 H. 풀라인 정치적 후계자 세우고 후진양성

였다.

카이퍼가 키운 정치적 후계자는 바로 헨드릭 풀라인(Hendrick Colijn)이었다. 그 당시 풀라인은 40세였고 캄펜사관학교 출신인데 다 화란 동인도령의 일을 맡아본 경험이 있다. 그는 총독의 주 군사 행정보좌관 부관을 지냈고 철저한 카이퍼의 칼빈주의 세계관을 따랐다. 카이퍼가 수상직에 있을 때 풀라인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을 뿐 아니라 장차 카이퍼는 그가 반혁명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인물로 지목하고 하원의원으로 지명했다. 그 후 풀라인은 당수가 되었고 나중에 수상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일을 했다. 그렇지만 바빙크 박사

였다.

카이퍼가 키운 정치적 후계자는 바로 헨드릭 풀라인(Hendrick Colijn)이었다. 그 당시 풀라인은 40세였고 캄펜사관학교 출신인데 다 화란 동인도령의 일을 맡아본 경험이 있다. 그는 총독의 주 군사 행정보좌관 부관을 지냈고 철저한 카이퍼의 칼빈주의 세계관을 따랐다. 카이퍼가 수상직에 있을 때 풀라인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을 뿐 아니라 장차 카이퍼는 그가 반혁명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인물로 지목하고 하원의원으로 지명했다. 그 후 풀라인은 당수가 되었고 나중에 수상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일을 했다. 그렇지만 바빙크 박사

였다.

카이퍼가 키운 정치적 후계자는 바로 헨드릭 풀라인(Hendrick Colijn)이었다. 그 당시 풀라인은 40세였고 캄펜사관학교 출신인데 다 화란 동인도령의 일을 맡아본 경험이 있다. 그는 총독의 주 군사 행정보좌관 부관을 지냈고 철저한 카이퍼의 칼빈주의 세계관을 따랐다. 카이퍼가 수상직에 있을 때 풀라인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을 뿐 아니라 장차 카이퍼는 그가 반혁명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인물로 지목하고 하원의원으로 지명했다. 그 후 풀라인은 당수가 되었고 나중에 수상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일을 했다. 그렇지만 바빙크 박사

였다.

카이퍼가 키운 정치적 후계자는 바로 헨드릭 풀라인(Hendrick Colijn)이었다. 그 당시 풀라인은 40세였고 캄펜사관학교 출신인데 다 화란 동인도령의 일을 맡아본 경험이 있다. 그는 총독의 주 군사 행정보좌관 부관을 지냈고 철저한 카이퍼의 칼빈주의 세계관을 따랐다. 카이퍼가 수상직에 있을 때 풀라인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을 뿐 아니라 장차 카이퍼는 그가 반혁명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인물로 지목하고 하원의원으로 지명했다. 그 후 풀라인은 당수가 되었고 나중에 수상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일을 했다. 그렇지만 바빙크 박사

칼럼 음악목회 (27)

음악의 조건(3)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소소장



이전의 글에서 음악의 조건의 첫째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음악은 들을 수 있는 만큼 음악을 이해할 수 있고 음악을 만들 수 있고 음악을 표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둘째는 음악적 환경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연주자도 훌륭하고 악기도 훌륭해야 하지만 음악을 잘 연주할 수 있고 청중이 잘 들을 수 있는 음악적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젊어서부터 오디오 기기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대량생산 음향기기가 아닌

하이엔드라고 분류하는 명기를 갖고 싶어했습니다.

한번은 더 나은 명기를 구입하고 싶은 마음에서 전문 오디오판매하는 곳을 찾아 갔었습니다. 그런데 명기를 소개하는 분이 저에게 문기를 Listening Room이 있느냐? Room의 크기와 가로 세로의 비율은 어떠하냐? 바닥과 천정과의 벽의 소재는 무엇으로 되어있느냐? 음향판과 방음은 설치되어 있느냐? 등등 아주 여러 가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판매하는 명기를 들만

한 환경이 갖추어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 자신 스스로가 부엌이 한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을 한다는 사람이 그리고 아주 섬세하고 아름답고 때로 웅장하고 다양한 다이내믹의 음악을 듣고 싶어 명기를 구한다는 사람이 그에 맞는 환경도 구성하지 못하고 무조건 명기만 구하려고 했었기 때문이었지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음악의 3대 부분 즉 작곡, 연주, 감상 중에서 감상도 음악의 부분이기 때문에 청중이 곧 음악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곡가나 연주자만 음악인이 아닙니다. 감상하는 사람도 음악인입니다. 목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나는 음악을 듣는 것은 좋아하는데 노래를 부를 줄 모른다고 합니다. 작곡이나 연주를 못해도 음악을 듣기 좋아한다면 분명히 음악인입니다. 다만 청중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음악에 있어서 청중은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즉 성도들의 음악적 수준이 음악의 조건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특성상 예배 중에 청중이 함께 찬양하는 순서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의 청중은 단순히 감상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주를 동참하기 때문에 청중의 음악적 수준이 한층 더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교회의 경우 회중이 함께 찬양할 때, 너무 크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조용하게 부르지만 모두가

하나가 되는 소리 즉 귀로 들으면서 서로 Blending이 되는 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또한 각 성부로 나뉘어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듭니다. 물론 무대 위에서 리드하는 싱어들이 마이크에 대고 스피커가 쪼아주게 부르지는 않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귀를 막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모두의 소리를 다 들으면서 아름다움을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청중이 있기에 찬양대의 찬양 또한 수준 높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찬양대와 회중은 서로 상대적인데 소리만 질러대는 찬양대의 찬양, 완벽하지 않은 영성찬 화음에 음정은 떨어지고 가사의 의미도 전 달이 안되는데 소리만 크면 회중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 비록 커다란 찬양대는 아니지만 섬세하고 아름답고 완벽한 화음에 다양한 다이내믹과 찬양가

사를 자기 신앙으로 표현하는 찬양대의 찬양에 깊은 감동을 받고 마음 문을 활짝 여는 회중들이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듯 찬양대와 회중의 수준은 함께 가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 생각해보기 이젠 전적으로 음악목회자 또는 지휘자에게 있습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데 본인이 체감해 본적이 없는 음악의 완성도를 이루어 가고자하는 열심만 있을 뿐 찬양을 부르는 찬양대나 듣는 회중들이 감동할 수 있는 찬양으로 승화시켜 나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양은 했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찬양을 어떻게 했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마치 습관적으로 비싼 재물을 잡아먹는 형식적인 제사보다 비록 비둘기를 드릴지라도 자신과 믿음을 드리는 제사처럼 말입니다.

▲ 차세대연구소: (714)699-0210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교인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는 세계의 중심에서 신학교육의 지평을 넓혀 갑니다

2014년 여름계절학기 강의시간표

| 과목명 | 담당교수 | 시간 | 기간 |
|-----------------------------------------------------------|------------|----|-----------------------------------------------------------|
| 미주 2세 교육철학 | 현용수 | 주간 | 5월 26일 (월) ~ 30일 (금) |
| B.A. & M.Div. '고엘(GOEL)' 포럼 * '고엘'은 히브리어로 '기쁨'을 뜻하는 뜻입니다. | 9명의 강사들 | 주간 | 6월 9일 (월) ~ 12일 (목) |
| B.A. 기독교윤리학 | 강우중 | 주간 | 6월 9일 (월) ~ 13일 (금) |
| 동양철학개론 | 구경모 | 주간 | 6월 16일 (월) ~ 20일 (금) |
| 한국교회의 신학사상사 | 박정환 | 주간 | 6월 16일 (월) ~ 20일 (금) |
| 에스겔, 비전과 현실사이에 선 선지자 | 김수정 | 야간 | 6월 16일 (월) ~ 27일 (금) |
| M.Div. 수원론과 통일론 | 김상구 | 주간 | 6월 23일 (월) ~ 27일 (금) |
| 신구약 중간사 | 이상명 | 주간 | 6월 30일 (월) ~ 7월 3일 (목), 7일 (일) *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금)은 제외. |
| 히브리어 신학 | TBA (후유공제) | 야간 | 7월 7일 (월) ~ 18일 (금) |
| 세계선교의 역사 | 김신 | 야간 | 7월 21일 (월) ~ 8월 1일 (일) * 수요일(23일과 30일) 제외. |

강의시간: (1) 주간반 (1주2회) - 9:00 A.M. ~ 5:00 P.M. (2) 야간반 (2주2회) - 7:30 P.M. ~ 11:00 P.M.
 * '미주 2세 교육철학' 과 '고엘포럼'은 일반인 무료 참석가능.
 * '고엘(GOEL)' 포럼 강사진: 고순희 (아름다운교회담임), 민종기 (충현선교교회담임), 정진영 (TEDS), 김지현 (홍신대), 백신중 (TRINITY INT'L UNIV.), 이말찬 (혜신대), 김형준 (필로소피대학), 본교교수 (이상명, 조진성, 김수정)

2014년 여름계절학기·가을학기 신(편)입생 모집

01 pts 학사 (B.A.), 교역학석사 (M.Div.) 과정 (온라인 원격강의 개설)
여름계절학기 개강일 : 2014년 5월 26일
가을학기 개강일 : 2014년 8월 25일

02 pts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부설 산타페언어문화교육원 ESL 과정
여름학기 개강일 : 2014년 5월 19일
가을학기 개강일 : 2014년 9월 8일

03 pts

- 2014년 가을학기 야간 강의 - 나성영학교회에서 개설
- 2014년 여름계절학기외 가을학기 - 온라인강의 수강 가능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 926-1023 Fax. (562) 926-1025
 www.pts.edu / office@pts.edu

DTS in America

1-20 발행 정회원 ats 준회원

총장 이상명 박사 / 이사장 김인식 목사
 ※ Office 임대합니다. (1,300, 900, 800 sqft)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187. 창조론의 기초(37) 타락과 저주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요?” 혹은 “왜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내게 허락하셨나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꼭 하게 되는 질문들이다. 믿음이 좋았던 용도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런 원인을 하였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입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욘10:18).

한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보다 명성이 더 높았던 전도자 찰스 템플턴 목사(Charles Temple-

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맞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은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창3:17-19) 하였다. 창조물들 중 어떤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게 되었다. 또, 창조물

이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큰일이 다. 좋은 것도 타락된 세상에서는 나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각종 기생충들도 타락 후에 이와 유사한 변화를 겪었을 것이다. 원래는 좋은 목적을 가졌지만 타락의 결과 즉 관계(시스템)가 고장난 상태에서는 서로에게 혹은 다른 편에 고통을 주게 된 것이다.

김치 없이 못 살겠다는 한국인들은 너무나 많다. 치즈 없이는 못살겠다는 서양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김치나 치즈 모두 다 박테리아 덕분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박테리아나 미생물들은 아직도 사람들에게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하와이의 한 오징어 종류에 붙어 있는 박테리아는 폴레라의 독(toxin)과 비슷한 것을 만들지만 이 오징어에 전혀 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오징어를 적으로부터 공격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호랑이나 사자의 날카로운 송곳니와 날카로운 발톱을 직접 창조하셨을까? 아니면 저주의 결과일까? 노아홍수나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는 증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증언을 통하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며 성경의 사실성에 대해 강력한 증거들

주는 다 육식을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박쥐들은 꽃에 들어 있는 꿀을 빨기도 하고 과일도 먹는다. 어떤 박쥐는 아예 과일만 먹고 산다. 남아메리카 밀립에 사는 킨카주(kinkajou)라는 동물도 아주 날카로운 송곳니를 가졌지만 초식이다. 이들의 날카로운 송곳니는 육식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이다. 원래 모든 동물들은 초식이었고(창1:29) 어떤 동물들은 날카로운 이빨을 가졌지만 아직도 초식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육식동물들의 소화관은 짧다. 긴 소화관은 먹이의 대부분이 섬유소인 풀을 먹고 사는 동물들에게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판다 베이는 곰처럼 짧은 소화관을 가지고 있지만 주로 초식을 하고 있다. 소화관으로 식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님을 보여준다. 현재를 통해 과거를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앞의 박테리아와 기생충들의 예에서 보았듯이, 고통의 원인들 중에 가장 중요한 근본 이유가 아담의 반역과 하나님의 저주다. 아담의 반역과 하나님의 저주로 온전했던 세상은 변했다. 사람들에게는 고통과 죽음이 시작 되었고, 다른 창조물도 동일하게 그 영향을 받아야만 했다. 이 성경 역사는 뒤이어 나오는 노아홍수의 증

영성칼럼



이희영 사모
(뉴저지복음장로교회)

공평하신 하나님

형의 눈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오는 길에 처음 만난 둘째 딸 라헬에게 첫눈에 반합니다. 야곱이 오자 불어오는 재산을 보며 그를 복덩이로 여기고 거짓으로 큰 딸 레아를 사랑에 빠진 동생 라헬로 가장해 속여 결혼을 시켜 첫날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언니 레아입니다. 세상에 과연 내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들 중에 남편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일부다처인 세대에 살던 여러 여인네들의 생전 경쟁이 치열합니다. 남편 야곱을 가운데 두고 벌리는 여형제간의 시기, 질투이야기가 완전 한국 사극드라마입니다. 총21년이나 질질 늘어 복주머니로 생각되는 야곱을 속여 꼭 붙입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에서도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한 라헬은 애가 없다가 나중에 겨우 두 자녀를 얻게 되고, 반면에 천대받는 레아에게는 6자녀를 두도록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배려하십니다.

남편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으려 여러 자녀를 둔 것과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나 자녀가 없으니 가슴을 쥐어뜯으니... 내게 있는 것 당연하고 없는 것만 부러워하는 것은 매한가지니 레아도, 라헬도 다 힘들게 마음아픈 인생을 산 것입니다. 아버지의 욕심 때문에 따로 시집을 갔다면 그래도 정답게 의지하고 살 수도 있을 자매들을 한 남자에게 한 재산 뽐아내려 시집보내는 바람에 명등 인생을 안겨준 비정의 아버지입니다. 자기 욕심위해선 딸들을 팔 수도 있다는 것, 자기 소원사랑을 위해선 형제고 뭐고 모든 수를 써서라도 손에 넣어야한다는 극도의 이기주의를 잘 심어주었으니 도무지 무슨 부모가 그런가? 한 남자의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여인네가 아닌 여형제간만... 여형제라는 것이 오히려 경쟁의 불을 그은 폭이 되니 부모 사랑을 제대로 못 받으면 저리도 자기만 아는 적은 인물이 되기도 하는구나 아찔하고 감사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으며 사랑해준 부모님 밑에서 흠뻑 사랑받고 자란 것이 얼마나 복인지요! 그리고 보면 사랑 넘치는 부모님, 이 세상 여자라곤 나밖에 없는 줄 아는 외골수 남편, 최고의 믿음의 엄마라고 자랑스레 여겨주고 사려하는 세 아들 자녀들 두었으니... 부모 복, 남편 복, 자식 복, 여러 사랑하는 지인의 관계의 복, 건강 복, 심지어 나를 겸손케 하는 누르려는 이들과까지 골고루 셀 수 없는 복으로 넘치는 저의 인생입니다. 입이 열려라도 나는 내 인생이 힘겹다고 불평하면 너무도 뻔뻔한 자가 되는 것이겠지요. 다만 최신 다해 죽을힘으로 애써도 밀려난 독에 물 붓듯 힘든 사역 그것 하나에 충성을 다하라고 하나님은 내게 1차적인 복은 정말로 많이 넘치도록 부어주셨으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제 38년 그 교회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또 다른 하나님이 마련하신 새로운 사역으로 옮겨가는 모퉁이에 서서 여기까지 부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사역 중에 만나는 기막힌 상황 가운데 이제 그만 매번 마치 처음처럼 힘겨워하는 마음을 견고 레아처럼, 라헬처럼 없는 것을 감수하고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을 좀 더 열심을 내리라 마음을 달래드립니다. 아 주님~ 제게 임한 복들을 헤아려 보자면 너무도 주신 것들이 차고 넘쳐요. 저를 보고 불공평하다고 하리만큼 내적, 외적으로 주어진 복이 헤아릴 수도 없으니 주님... 과연 당신은 당신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의 일생을 책임지고 풍성히 누리도록 길을 여시고 누리는 모습을 흐뭇해 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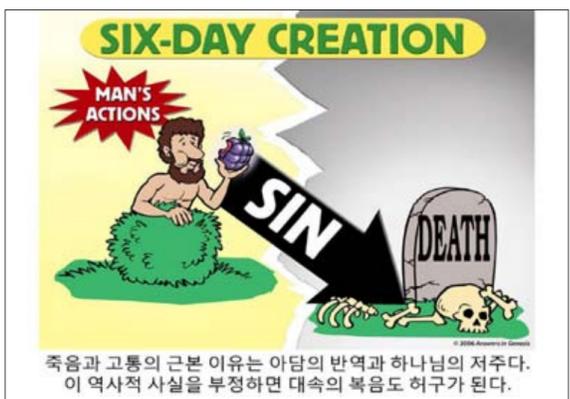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하늘나라 마음을 무엇보다 소중히 감사하며 누리고 나눠줄게요. 제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크게 보이고 은혜가 크게 느껴지도록 저의 마음을 은혜로 돌려주소서.

이메일 : heenlee55@hanmail.net

열역학 제 2법칙은 모든 생물의 쇠퇴와 죽음 의미 우주는 창조부터 창조자 공급 없다면 멸망 불가피

ton, 1914-2001)도 과학(진화론)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1996년에 “신이며 잘 있거라 (Farewell to God)”란 책을 쓴 기독교 신앙의 반대자가 되고 말았을 정도로 창조와 고통의 문제는 심각한 주제가 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삼히 좋았다'는 창조세계에 왜 이런 고통과 죽음이 있는가? 진화론은 성경의 창조와 역사를 믿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 문제의 답을 알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 진화론의 영향 아래 있는 프린스턴대학교에서 배운 템플턴 박사는 하나님을 떠났고, 그 친구의 영향을 받은 그레이엄 목사도 성경의 무오성 문제에서 흔들리게 되었다. 또 평신도이면서도 많은 목사님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류작가이자 교수였던 C.S. 루이스도 진화론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의 대표작 “고통의 문제”에서 고통의 원인에 대한 진정한 답을 주지 못했다. 사실이 아닌 진화역사 안에서 진짜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맨 처음에 가장 좋았을 뿐 아니라 완벽하였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에 대해 하나님은, “내가 네 아



죽음과 고통의 근본 이유는 아담의 반역과 하나님의 저주다. 이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면 대속의 복음도 허구가 된다.

들은 나빠지기 시작했다. 다음과 같은 예를 살펴보자.

박테리아(세균)와 기생충 계속해서 새로운 병원균 박테리아와 해로운 바이러스들이 알려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아담의 타락 이전에는 사람들에게 해로운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다. 대장균은 사람의 대장 속에 살면서 사람에게 비타민 B와 K를 만들어 공급한다. 그러나 장자가 터져 대장균

을 확보할 수 있었다. 가시가 생겨났다는 말씀은 있지만 아쉽게도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에 대해서는 증인의 직접적인 말씀이 없다. 변이(variation)의 다양성이 거의 무한하기 때문에 저주의 결과로 변형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모습으로 창조되었다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다 음과 같은 예들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박쥐들의 이빨은 무섭게 날카롭다. 박쥐들은 대개 벌레들을 잡아먹거나 동물들의 피를 빨며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모든 박

쥐들, 바벨탑사건의 증거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충분히 믿음만 하다. 만약 이 역사적 사실을 부인한다면 죽음과 고통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은 불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도 허구가 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세상은 창조주가 없어도 좋은 세상이 아니라 창조자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세상이었다. 물질세계에 철저히 적용되는 열역학 제 2법칙은 무생물을 포함한 모든 것은 쇠퇴와 죽음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창조자의 공급이 없다면 우주는 멸망하도록 원래부터 그렇게 창조된 것이다. 이 법칙은 창조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인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고 싶었던 의도와 성품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그 창조자를 주인(Lord)으로 인정하고 그 분께 100%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조성근목사 부흥성회 일정

조성근목사 CBS TV 특강 (세상을 이기는 지혜 “솔로몬”)

- 다시보기 www.cbs.co.kr/tv
- 트위터 www.twitter.com/cbssolomon
- 페이스북 www.facebook.com/cbssolomon
- 유튜브 www.youtube.com/cbssolomontv

2014 기도성회

| | | | |
|-----------|--------------------|-----------|------------------------|
| 1일 | 송구영신, 신년예배 | 12일 ~ 15일 | 우리동교회(김홍경목사) |
| 1일 ~ 9일 |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축복 기도성회 | 16일 ~ 25일 |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
| 2일 | 평화의 동산 기도원(미중진목사) | 19일 |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 (지동근목사) |
| 10일 ~ 12일 | 침피중양교회(김형우목사) | 26일 |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
| 13일 | 오산리 초차교회 금식기도원 | | |

2013 기도성회

| | | | |
|-----------|--------------------|-----------|------------------|
| 1일 | 송구영신, 신년예배 | 13일 | 포일남교회(김영주목사) |
| 1일 ~ 3일 |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축복 기도성회 | 14일 ~ 17일 |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
| 3일 | 평화의 동산 기도원(미중진목사) | 17일 ~ 26일 |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
| 4일 ~ 5일 | 갈멜산 금화금식기도원(안양) | 27일 |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
| 6일 ~ 8일 | 한광교회(차은일목사) | 27일 ~ 30일 | 과천교회(주현신목사) |
| 11일 ~ 13일 | 침피중양교회(김형우목사) | | |

2

| | |
|-----------|------------------|
| 2일 | 햇빛교회(임숙희목사) |
| 2일 | 영원교회(리승철목사) |
| 4일 ~ 7일 | GST 30th 신학생훈련 |
| 11일 ~ 14일 |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
| 14일 ~ 23일 |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
| 24일 |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
| 25일 ~ 27일 | 화평교회(이재욱목사) |

3

| | |
|-----------|------------------|
| 3일 ~ 6일 | 침피중양교회(차은일목사) |
| 10일 | 순복음삼마교회(이일성목사) |
| 11일 ~ 14일 |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
| 14일 ~ 23일 |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
| 24일 ~ 26일 | 신남교회(김봉현목사) |
| 31일 |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

4

| | |
|-----------|------------------|
| 7일 ~ 9일 | 월평동교회(조은원목사) |
| 11일 | 칼빈대학교 - 대학원 채플 |
| 15일 ~ 18일 |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
| 18일 ~ 27일 |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
| 28일 |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

2

| | |
|-----------|--------------------------|
| 3일 ~ 6일 | GST 32nd 신학생 훈련 |
| 10일 ~ 13일 |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
| 17일 ~ 19일 | 웅진 신세계교회(홍종구목사) |
| 20일 ~ 28일 |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
| 21일 ~ 23일 | LA 베이커스필드 한인장로교회 (한재복목사) |
| 23일 |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 (지동근목사) |

3

| | |
|-----------|------------------|
| 1일 ~ 8일 |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
| 10일 ~ 13일 |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
| 14일 | 성일교회(원영식목사) |
| 17일 ~ 19일 | 발안 사랑교회(서기영목사) |
| 23일 ~ 26일 | 동문교회(이동효목사) |
| 30일 |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

5

| | |
|-----------|------------------|
| 3일 | 과천교회(주현신목사) |
| 6일 ~ 9일 | 갈멜산 금화금식기도원 |
| 10일 | 평화순복음교회(홍영달목사) |
| 13일 ~ 16일 |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
| 16일 ~ 25일 |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
| 26일 |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
| 27일 ~ 30일 | 하늘비전교회(오영택목사) |

6

| | |
|-----------|------------------|
| 3일 ~ 5일 | 예우리교회 (류병희목사) |
| 10일 ~ 13일 |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
| 13일 ~ 22일 |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
| 24일 ~ 26일 | 가나안교회 (김의철목사) |
| 30일 |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

7

| | |
|-----------|------------------|
| 1일 ~ 4일 | 갈멜산 금화금식기도원 |
| 5일 | 인천 대은교회(전명주목사) |
| 15일 ~ 18일 |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
| 18일 ~ 27일 |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
| 28일 |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
| 29일 ~ 31일 |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

8

| | |
|-----------|------------------------|
| 1일 |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
| 2일 | 산곡기도원(한기채목사) |
| 4일 |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 (지동근목사) |
| 5일 ~ 8일 |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
| 6일 | 평화의 동산 기도원(미중진목사) |
| 12일 ~ 15일 | GST 31th 신학생 여름훈련 |
| 22일 ~ 31일 |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

9

| | |
|-----------|------------------------|
| 1일 | LA 미주 평화교회(김은목목사) |
| 2일 ~ 12일 |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
| 8일 |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 (지동근목사) |
| 16일 ~ 19일 |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
| 29일 |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
| 30일 | 새원교회(이정수목사) |

4

| | |
|-----------|------------------|
| 3일 | 칼빈대학교 - 대학원 채플 |
| 7일 ~ 9일 | 목동감리교회(최현규목사) |
| 14일 ~ 17일 |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
| 20일 ~ 23일 | 신성중앙교회(김연희목사) |
| 24일 ~ 30일 |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

5

| | |
|-----------|------------------|
| 1일 ~ 10일 |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
| 2일 ~ 4일 | 시애를 성회(최민하목사) |
| 12일 ~ 15일 |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
| 19일 ~ 22일 | 갈멜산 금화금식기도원 |
| 25일 |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
| 25일 ~ 28일 | 하늘비전교회(오영택목사) |

10

| | |
|-----------|----------------|
| 1일 | 칼빈대학교 - 대학원 채플 |
| 1일 ~ 2일 | 새원교회(이정수목사) |
| 5일 | 햇빛교회(임숙희목사) |
| 7일 ~ 10일 |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
| 13일 ~ 16일 | 남서중양교회(여찬민목사) |

11

| | |
|-----------|------------------------|
| 17일 ~ 26일 |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
| 20일 | LA 미주 베이커스필드교회 (지동근목사) |
| 27일 |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
| 27일 ~ 29일 | 동양교회(김종열목사) |

11

| | |
|-----------|------------------|
| 4일 ~ 6일 | 일심교회(원성민목사) |
| 10일 | 침피중양교회(김형우목사) |
| 11일 ~ 14일 |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
| 18일 ~ 20일 | 대천 성남교회(정민목사) |
| 24일 |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
| 25일 ~ 30일 |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

12

| | |
|-----------|------------------------|
| 1일 |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 (지동근목사) |
| 2일 ~ 14일 |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
| 15일 ~ 18일 | 신광교회(김성민목사) |
| 22일 | 인천기안교회(정영석목사) |

12

| | |
|-----------|-------------------|
| 23일 ~ 26일 |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
| 29일 | 신학생 철야 송년의 밤(GST) |
| 30일 ~ 31일 |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



목회서신

예수 안에서



Ye Seung-hun 목사 (사카고 가나안장로교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다양한 사건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허덕거리며 살아가고 있다. 갑작스런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회사의 어려움으로 새로운 직장을 찾아 나서기도 하고, 자동차엔진이 갑자기 고장 나기도 하고, 거의 성사된 것으로 알았던 계약이 파기되기도 하

고, 전혀 뜻밖의 오해를 받아 상처를 받기도 하고, 사업이 부도가 나기도 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인과응보의 원리를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인과응보란 선과 악의 행위에 따라 결과가 찾아온다는 이론이다. 별로 좋지

못한 상황이 찾아 왔을 때 그 원인이 이전에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단정 짓는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혐오하고 저주하기까지 한다. 입에서는 온갖 쓴뿌리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 끊임없이 why me?라고 따져댄다. 점점 거칠어가고 결국에는 스스로 지쳐버리

게 된다. 신앙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가장 극심한 고난을 겪은 사람은 아마 사도 바울일 것이다. 고난 가운데 처한 사도 바울의 특징은 슬픔 대신에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고후7:4). 환난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렇다만 따라 나오는 감정의 표현은 틀림없이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다. 그런데 슬픔이 아닌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 이것이 세상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만의 비밀이다. 그 비밀을 여는 코드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이다.

필자는 한 달전 휴스턴에서 시카고로 이사 와서 살고 있다. 지난주 일 이후에는 이삿짐이 휴스턴에서

한달 만에 들어왔다. 한달 동안 에어베드에서 잠을 자다가 어제는 침대에서 잤는데 그렇게 편안하고 좋을 수가 없었다. 침대에 드러누워서 천정을 응시하며 편안한 기분을 마음껏 즐겼다. 그러면서 찬송가 한 소절이 떠올랐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 거친 들 같은 환난이 찾아와도 하늘나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내 주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예수 침대에 누워서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곧 그리스도인들이다. 예수 침대에 누워서 누리는 그 기쁨이 얼마나 특별한지 아는가? 현재 만나는 고난의 정도가 아무리 극심하다 할지라도 결코 슬픔의 감정에 휩쓸릴 당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예수 침대에 누워서 누리는 기쁨으로 그

분을 더욱더 즐거워하고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므로 넉넉하게 견뎌낼 것이다.

당신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당신의 능력이나 자질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주목하는 것이다. 혹 당신 자신의 능력이나 자질을 의존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다면 열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자리를 이동하라. 그리고 당신에게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그분의 처분에 온전히 맡겨라.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4개 교단 목회자 연합친선 체육대회 선수들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C&MA, PCA, RCA 등 4개 교단이 배구와 축구 2종목의 경기를 펼쳤으며 최종우승은 지난해 우승한 A/G와 동물을 이룬 C&MA가 A/G의 양보로 최종우승을 차지했다.

경기에 앞서 드린 예배는 각 교단 뉴욕지역 지방회/노회의 대표들이 순서를 맡았다. 사회는 김명국 목사(C&MA), 기도 이재봉 목사(RCA), 말씀 김명옥 목사(A/G), 광고 오태환 목사(PCA, 준비위원장), 축도 구자범 목사(PCA)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명옥 목사는 여호수아 1:9절을 본문으로 "승리의 근원"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한편 주최 측은 오는 5월 19일(월)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미동부 5개주 목사회체육대회의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 4개 미국교단 한인목회자 친선체육대회

A/G, C&MA, PCA, RCA...C&MA 우승

뉴욕지역의 4개 미국교단 소속 한인목회자 연합친선 체육대회가 지난 12일 퀸즈 알리폰드 팍에서 열렸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주제로 하나님의성회(A/G),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전경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후원 호소

파킹장 공사 미비로 입당 불허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담임 조응철 목사)가 예배당 입당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93년 네바다 주 라스베가스에서 시작된 갈보리장로교회는 지난 10여년간 미국 교회와 사무실 등을 빌려 예배를 드리던 중 하나님의 은

혜로 2.4에이커의 땅과 집을 구입하고 집을 개조해 교회와 사택으로 사용했다.

교인들 대부분이 이민 1세로 다음세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새 예배당의 필요성을 느끼고 3년전 교회건축을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 70여명이었던 교인들이 오랜 건축으로 인해 40여명 정도만 남게 됐고 담임목사를 비롯해 대부분의 교인들이 은퇴연금 및 생명보험까지 해약하며 헌신함으로 건축을 완공하게 됐다.

그런데 입당예배를 준비하던 중 파킹장 공사가 완전히 마치지 전까지는 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소방당국의 통보를 받았다.

2에이커 남짓한 면적의 파킹장 공사비용은 적어도 30만 달러의 예산이 필요해, 현재 갈보리교회 형편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교회는 교단을 중심으로 모금운동을 시작했다.

조응철 목사는 "교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를 기쁘게 하고 있다"며 한인교계의 관심을 호소했다.

▲교회주소: 6554 W. Desert Inn Road, Las Vegas, NV 89146

▲전화: (702)579-7576 (이성자 기자)



APU LA리저널 센터 홈커밍데이 행사에서 다니엘뉴먼 박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학교와 네트워크 통해 사역지 찾는다

아주사퍼시픽대 LA 리저널센터 홈커밍데이

아주사퍼시픽대학교(APU, 총장 존 월레스 박사)의 LA 리저널센터(디렉터 도널드 브라운 박사)가 주최한 홈커밍데이 행사가 지난 30일 오후 6시 30분 개최됐다.

이번에 졸업하는 학생들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이번 행사에서 LA 리저널센터 디렉터 브라운 박사는 환영사를 통해서 "학교와 여러분 서로의 지원이 필요하다. 서로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역지를

발견하고 서로 도와야 한다. 학교를 졸업하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성경과 함께, 그리고 예수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권면했다.

또 한국어 목회학 박사과정 디렉터 다니엘뉴먼 박사가 누가복음 5장 12-13절을 본문으로 설교했다. 뉴먼 박사는 "전세계 70억 명 중 한 사람인 당신이 왜 이 학교에 와 있는가?"를 묻고, "그 대답은 간단

하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가장 깊은 기쁨과 굽뽀름이 만나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인문명회장 광경동 목사, 동문 김조셉 목사 등이 참석,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김조셉 목사는 "아주사에서 공부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현재 나성한인교회 교육부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아주사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그곳에서 사역하게 됐다.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나라에서 여러분을 크게 불러 쓰실 것이다"라는 말로 격려했다.

또 졸업생을 대표해 정두진 목사가 학교와 동문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한편 APU의 LA 리저널센터는 LA 한인타운 중심인 월서 거리(3580)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어진 프로그램, LA 신학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문의: (213)252-0962/lacenter@apu.edu (박준호 기자)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윤복희 권사 동양선교교회에서 간증집회

윤복희 권사 간증집회가 4일 오후 5시 동양선교교회(담임 박형은 목사)에서 열렸다. 박형은 목사의 기도와 인사말에 이어 등단한 윤 권사는 지난 날 어렵고 힘들었던 삶과 고비고비를 뮤지컬로 노래와 율동과 연기로 간증했다.

윤 권사는 "다섯 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고 너의 지팡이가 돼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다. 나는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체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권사는 "오빠와 함께 많은 돈을 벌었을 때 나는 무척 교만한 사람으로 전락할 뻔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공 연장을 찾아가다 교통 사고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새로운 신앙의 길을 찾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때 그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는 것을 똑똑하게 느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 권사는 에메이징 그레이스를 한국 전통국악스타일로 불러 청중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정리: 박준호 기자)



윤복희 권사가 동양선교교회에서 자신의 삶을 뮤지컬로 구성하여 연기를 하고 있다

Worldwide church directory with header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 and various church listings including New York, New Jersey, Hawaii, and other regions.

동부교계 게시판



제4회 청교도가정사역 세미나

청교도가정사역원(원장 유경옥 전도사)가 주최하는 제4회 청교도가정사역 세미나가 "가정 안전 불감증 더 이상 관망 말고 견제내야 합니다"라는 표어를 걸고 뉴욕에서 열린다. "분노조절과 부부대화" 맨토링 코스로 유경옥 전도사가 3회 강의 한다. 대상은 △목회자부부 6월 2일(월), 3일(화), 5일(목) △평신도부부 5월 26일(월), 27일(화), 29일(목)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장소는 패밀리티처 뉴욕지부(161-08 46Ave, Flushing), 회비는 부부 100달러 평신도부부 200달러.

▲문의: (718)961-0151, (917)698-6065

뉴욕교협 체육대회

뉴욕교협(회장 김승희 목사)이 주최하는 제 29회 체육대회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일시: 5월 26일(월, 메모리얼데이) 오전 8시 시작 △장소: Flushing Meadows Corona Park(자년과 동일) △경기종목 및 참가비: >배구: 청소년팀/중고등학생, 청년팀/대학생-35세 이하, 장년팀/35세 이상, 여성팀(팀당 10명, 팀당 200달러) >축구: 일반부/팀당 7명(팀당 200달러) >축구: 일반부/선착순 8팀(팀당 17명, 팀당 300달러) △참가자격: 교회출석 6개월 이상된 교인. 신청마감은 5월 19일(월)까지. 당일접수는 받지 않는다.

▲문의: (718)358-0074

“지치고 힘들다...그래도 만족하며 산다!”

(1면에서 계속)

SNS에 등장하는 것은 크리스천 엄마들이 다른 여성들에 비해 힘들어한다는 편견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크리스천 엄마들은 양육하는 법에 있어서나 신체 외모와 전체적인 삶의 질에 있어서 다른 친구들에 비해 13배 정도나 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직장에 다니는 엄마들은 사회와 문화가 부과하는 압박감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 한편에 엄마로서, 직장인으로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완전하고 완벽해야한다는 부담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미국 사회와 문화는 엄마들에게 “당신도 할 수 있다”라는 신화를 부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성들의 결혼율이 갈수록 30대나 40대 초반까지 늦추어지고 있고, 결혼을 하고서도 출산과 육아를 미루는 현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교회는 반드시 이러한 문화적 도전

앞에서,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크리스천으로서 성경에 부합한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삶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해줘야 한다.

“좋은 크리스천 엄마들”은 아이에게 ‘얼마나 많이 주고’ ‘무엇을 해주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관여하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엄마들은 자녀뿐 아니라 남편과 맺는 관계, 직장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만성 스트레스와 심한 불균형에서 오는 좌절감에 힘들어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상의 불만족은 크리스천 엄마들이 결코 연약한 여자가기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다. 더 나은 엄마, 더 나은 직장인 그리고 더 나은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싶은 희망과 바람과 현실에서 오는 갈등이다. 그러나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특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는 엄마는 무적이다!



아버지날 효도잔치를 주최한 병원선교회 측과 참석 목회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초대교회사역 뉴욕에도 일어나길”

12일, 할렐루야2014 제 1차 준비기도회

뉴욕교협(회장 김승희 목사)의 최대 연례행사인 할렐루야복음화대회 2014 제 1차 준비기도회가 12일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열렸다.

회장 김승희 목사는 “교협 행사였던 성지순례에서 지난 6일 저녁에 돌아와 바쁜 일정 가운데 준비기도회에 참가해 뜨겁게 기도한 회원 목사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풍삼 준비위원장은 할렐루야대회 진행과정을 설명하면서 “준비위원장이 역할은 기도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뉴욕의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불을 붙여 대회참여를 독려하고, 아름다운 대회가 되기 위해 기도하고 참가해 달라”고 부탁

했다.

이날 이풍삼 준비위원장과 이희선 진행위원 총괄 등의 대회조직이 발표됐다.

1부 예배는 이은수 목사 인도로 기도 이광희 목사, 성경봉독 이주익 장로, 설교 방지각 목사, 특별통성기도 김희복 목사 전희수 목사, 광고 송일권 목사, 축도 신현택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설교를 맡은 방지각 목사는 “초대교회의 7대 사역”(행2:42-47)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할렐루야대회가 뉴욕교협의 연례행사로 하는 것이라면 의미가 없다. 뉴욕한인사회가 변화돼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7대 사역

이 뉴욕도성에도 일어나길 바란다”며 ①말씀운동 ②사랑운동 ③기도운동 ④공동체 운동 ⑤하나님의 운동 ⑥새생활 운동 ⑦전도운동의 7가지 사역을 전했다.

이번 2014 할렐루야 복음화대회는 세월호 사건의 희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단원고등학교가 있는 안산에서 목회하는 고훈 목사(안산제일교회)를 강사로 6월 13일(금)부터 3일간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열린다. 고훈 목사는 16

일(월) 오전 9시 금강산에서 목회자 세미나도 인도한다.

어린이 대회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프라미스교회 소속 사역자 2명(알렌 우, 심혜진)을 강사로 열린다. 청소년 복음화대회는 9월 5일부터 2일간 예정돼 있으며, 강사는 미정이다.

한편 2차 준비기도회는 5월 27일(화) 오전 10시30분 뉴욕순복음연합교회(담임 양승호 목사)에서, 3차 기도회는 6월 2일(월) 오전 10시30분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열린다.

또한 대회를 앞두고 6월 9일(월) 오전 10시30분 한인동산장로교회(담임 이풍삼 목사)에서 3차 임실행위 모임이 열린다.

(유원정 기자)

필라복음화대회 6월 12-15일 개최

필라교협 제34회기 3차실행위, 강사 이종찬 목사

대필라델피아지역 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선훈 목사)는 지난 8일 오전 11시 세천교회에서 제34회기 3차 실행 위원회를 열고 필라복음화대회를 확정하고 강사에 이종찬 목사를 선정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1부 경건예배는 김선훈 목사 사회로 박도성 총무 기도에 이어 강승호 목사(증경회장)가 이사야 6:8-10을 인용, “소명에 살다 사명에 죽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의 소명 받고 사명 받은 하나님의 종들의 각성에 대해 설교한후 이대우 목사(증경회장) 축도로 마쳤다.

이어 회무 처리에서는 매년 9월 개최하던 복음화 대회를 올해는 6월 12일(목)에서 15일(주)까지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일정은 △새벽예배: 13-15일 오전 6시 △부흥집회: 12-14일 오후 8시, 15일(주) 오후 6시, △교역자 세미나: 13일(금)

오전 10시 △평신도 세미나 오전 10시이며

대회 장소는 안디옥교회(담임 호성기 목사)이며 강사는 한국 수원 권선제일교회 이종찬 목사(예장 총회 부흥사회 21대 회장을 역임했다.

한편 복음화 대회를 위한 특별 기도회는 2회 갖기로 결의했다.

이외에 △증교 개혁자 탐방 학술세미나(9월 8-18일) 개최 △국제기 드문대회 협력 △예배 회복을 위한 심포지움(5월 19-21일, 대회장 최고선 목사) 협조 등에 대해 결의했다.

또 유사 기독교 이단에 대해 이단대책위원회에서 계속 조사하기로 했다.

자세한 문은 홍보담당 강승호 목사(267-243-7833)에게 하면 된다.

(기사제공: 필라교협)

엘림경로센터 아버지날 행사

엘림경로센터가 주최한 아버지날 행사가 지난 9일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담임 이만호 목사)에서 열렸다. 행사는 이만호 목사 사회로 김상태 목사(뉴욕주님의교회 담임)

기도 후 시작됐다.

참석 어르신들은 “어머니의 마음”, “아리랑”, “나의 살던 고향” 등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돌아가신 부모님과 고국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박혜숙 집사의 부채춤과 장구춤, 송안심 권사의 어머니님 심장노래, 엘림무용단의 ‘예수님이 좋은길’, 풀가춤, ‘행복해요, 웃다보니’ 등을 노래에 맞춰 율동했다. 이어서 이 행사를 후원한 뉴뱅크의 김은교 지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로센터는 뉴뱅크의 후원으로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 꽃 달아드리기, 시계 선물, 푸짐한 점심식사를 대접했다.

(기사제공: 엘림경로센터)



할렐루야 2014 제 1차 준비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병원선교회 제15회 아버지날 효도대잔치

뉴욕병원선교회(회장 김영환 목사)가 주최한 제 15회 아버지날 효도대잔치가 지난 8일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열렸다.

준비한 300석이 모자라 테이블을 늘리고도 출입문을 통제할 정도로 많은 어르신들이 참석한 이번 효도대잔치에서 김영환 목사는 어르신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하도록 초청의 시간을 가졌다.

또 퀸즈한인회 부재봉 회장은 김영환 목사와 2명의 봉사자(김은숙, 박영애 전도사)에게 봉사상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1부 예배는 기도 허윤준 목사, 성경봉독 박영진 장로, 말씀선포 송병기 목사(“약속있는 첫 계명”, 엡6:1-3), 특별찬양 이광선 집사, 축사 김승희 뉴욕교협회장, 황동익 뉴욕목사회회장, 황경일 뉴욕교협증경회장, 전희수 미동부여성목회자협부회장, 축도 박진하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2부는 오대환 목사의 식사기도 후 김경열 목사 사회로 오라수서가 이어졌다. 필그림선교무용단, 밀알선교협

창단, 정태희 한국무용팀, 제시유&브라이언김 색소폰 연주, 정인국 집사의 바이올린 연주 등이 진행됐다. 또 뉴욕공연중인 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된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의 특별 미니 공연도 있었다.

뉴욕병원선교회는 한국요양원과 너싱홈, 병원 등을 전도하며 예배 및 위로 행사를 갖고 있다. 또 워싱턴

꽃놀이, 아버지날, 추석 잔치 등 철마다 노인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유원정 기자)



엘림경로센터(이만호 목사) 아버지날 행사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동부개혁신학교 졸업예배 및 학위 수여식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초청의 말씀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본 신학교 제 25회 졸업 예배 및 학위수여식이 다음과 같이 있사오니 많이 참석하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며 졸업하시는 분들을 축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캐나다 분교 학위수여식은 본교에서 함께 거행합니다.

학위 취득자

- 목회학석사(M. Div) 김경민, 김용원, 김은숙, 김정민, 김재상, 박수진, 서옥석, 소유영, 임은아
- 기독교 교육학과(M.R.E) 신주희
- 선교학석사(M. Miss) 김명자, 김필현, 이순옥, 황혜옥
- 여 교역학(Diploma) 김혜경, 정경숙
- 신학사(B. Th) 고엘림, 조혜진

일 시: 주후 2014년 6월 2일(월) 오후 8시
장 소: 퀸즈장로교회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연락 처: (718)463-7163
(718)886-4040
(646)717-2733

미주한인예수교 장로회 동부개혁신학교 학장장영춘 박사 이사장이용걸 박사

5월 가정의 달... 곳곳서 효도잔치

살림장애인선교회, LA 주부클럽 등



주부클럽이 동양선교회에서 개최한 효도잔치. 흥겨운 창으로 어르신들께 기쁨을 안겨주고 있다.



살림장애인선교회가 주최한 노인초청 특별만찬행사에서 박모세 목사가 참가자에게 선물을 증정하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효도잔치가 살림장애인선교회(대표 박모세 목사), LA 주부클럽(회장 강금자)을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열렸다.

살림장애인 선교회는 6일 만리장성에서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장애를 가진 한인 노인들을 초청 특별 만찬을 제공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만찬은 박모세 목사의 진행으로 열렸으며 이날 모인 참가자들에게 들기름과 양말세트 선물을 증정했다.

박모세 목사는 "미국에 와서 살면서 가족과 더 소홀해 지기 쉬운 바쁜 생활 속에서 장애가 있는 한인 노인분을 초청해 가족의 따뜻한 사랑을 조금이나마 함께 나누고자 하

는 마음으로 이 행사를 매년 가정의 달에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부클럽이 주최하고 동양선교회에서 갖은 효도잔치는 1500여명이 모여 큰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효도잔치는 가수 김흥국과 라디오코리아 이성미 아나운서의 사회로 노래자랑, 배워봅시다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창극과 김흥국씨의 공연이 있었다.

이날 박형은 목사는 "어버이 날 맞이해 어르신들이 모여 즐기려는 모습을 보여 기쁘다. 이민사회에서 지치신 분들이 새 힘 얻고 희망까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명 LA총영사는 "이민사회의 발전은 어르신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어르신들은 우리 동포사회의 어른들로서 동포사회에 대한 사랑과 정성을 갖고 주류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한다. 오늘 행사가 어르신들의 즐거운 추억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고 강영우박사 부인 석은옥 권사가 자신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을 들려주고 있다.

한인사회 기부문화 앞장

제2회 생명 살리기 소망갤러리

소망소사이터티(이사장 유분자 장로)가 주최한 제2회 생명살리기 소망갤러리 개막행사가 9일 오후 6시30분 한국문화원(원장 김영산)에서 열렸다.

이현주 라디오코리아 아나운서의 사회로 시작된 소망갤러리 개막행사는 리본커팅, 소망소사이터티 소개 영상, 최양순씨의 축가로 이어졌다. 이어 유분자 이사장이 인사말을, 김영산 한국문화원장이 축사했으며 이종열 공동준비위원장이 경과 보고했다.

유분자 이사장은 "이번 소망갤러리는 2년전 한인사회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부문화를 선보인 행사로 이번이 두 번째를 맞이하게 됐다"고 언급하며, "집안 곳곳에 만지를 뒤집어쓰고 있던 저의 소장품을 팔려줄 용의자가 많았으면 좋겠다. 이 소장품을 한데 모아 전시회를 열어 이웃을 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첫 행사를 열어 큰 호응을 얻은바 있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두 번째 행사를 준

비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다. 그중에는 돌아가신 분의 유품도 적지 않게 있었고 빛을 못보고 있던 소장품들이 전시회를 통해 새롭게 태어나 생명살리기에 사용된다는 것에 기쁨을 표현한 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갤러리를 통해 우리사회가 기부문화가 정착이 되고 살아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갤러리는 후원자들의 귀한 소장품을 전시하고 판매한 수익금은 아프리카 차드의 소망유치원 건립, 한인 독거노인 지원, 북한의 결핵환자 치료 후원 및 소망소사이터티의 후원금으로 사용된다. 이어 초대자가 이종국 한지작가가 워크샵이 있었으며 참가자들이 소망주제를 함께 불렀다.

이날 행사는 민경엽 목사(OC교회)와 나침반교회(담임)의 기도로 마쳤다. 생명살리기 소망갤러리는 22일까지 전시, 판매된다. 전시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자세한 것은 (562)977-4580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순종하여 받은 축복...'

새생명오아시스교회 석은옥 권사 간증집회

새생명오아시스교회(담임 김일형 목사)는 고 강영우 박사의 부인 석은옥 권사 간증집회를 9일 오후 7시 개최했다.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김일형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간증집회는 석은옥 권사가 김 목사의 소개를 받은 뒤 '순종하여 받은 축복'(마5:16)이라는 제목으로 간증했다. 석은옥 권사는 청년시절 강영우 박사와의 만남에서부터 가정을 이루는 과정, 그

리고 세상을 떠나기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했으며 그의 한마디에 이날 교회를 찾은 모든 이들이 귀를 기울이며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석 권사는 "61년 대학 1학년 때 맹인 강영우 소년을 만났으며 만난지 51년이 되는 지난 2012년 2월23일 하늘나라로 간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지내던 것이 섭섭하지만 마음속에는 행복한 기억이 남아 있다. 강영우 박



제 2회 생명살리기 소망갤러리에서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서부교회게 게시판

노인독사진 무료촬영

이글포토클럽(Eagle Foto Club USA 회장 바비 배)에서 17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이글포토클럽스튜디오(940 S. Western Ave. 2FL)에서 제 11회 노인 독사진 무료촬영회를 실시한다. 70세 이상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예약 신청은 이메일로만 가능하다. 신청순 50명.

문의 및 신청: ableusa@gmail.com

김보 장학생 선발

해피빌리지와 미주중앙일보가 김보 장학재단의 후원으로 2014년도 김보 장학생을 선발한다. 2014년 대학진학예정자 및 대학 재학생(2년제 커뮤니티칼리지 포함)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은 7월 7일까지이며 김보장학재단(www.kimbofoundation.org)과 해피빌리지(www.myhappyvillage.org)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690 Wilshire Place L.A, CA 90005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213)368-2607(스타 정)

남가주헬로십교회 설립기념 부흥회

남가주헬로십교회(담임 박세성 목사, 375 N. Towne Ave Pomon)는 설립 20주년을 맞아 16-18일 부흥성회와 흠키링 행사를 갖는다.

문의: (909)397-57387

글로벌선교회 장학생모집

글로벌선교회(담임 김지성 목사) 장학재단이 2014년 제 10회 장학생을 모집한다. 2014년 대학진학예정자, 대학·대학원생, 신학대학·대학원재학생 및 신체장애우 및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 목회자 또는 선교사 자녀가 신청대상이며 마감은 5월 31일. 신청서는 www.igmc.org에서 다운받으면 된다.

접수 및 문의: gmcgrant@gmail.com

신약성경통독집회

헬리웃효순장로교회(담임 김동원 목사)는 미주요한선교단 주최로 신약성경통독집회를 갖는다. 5월 26일(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진행될 이번 집회는 안성기 목사(시카고 미주요한선교단대표), 이희철 목사, 김동원 목사가 강사이고 회비는 식사, 간식포함 30달러. 행사를 주최하는 미주요한선교단은 '오직 하나님사랑, 말씀사랑운동'을 펼치고 있다.

문의: (213)268-3589

사와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 도하심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서울맹학교에 봉사하러 갔다가 만난 소년 강영우와 처음에는 오누이 관계로 지냈던 이야기, 오누이에서 연인으로 발전하여 함께했던 시절, 그리고 부부로서 지낸 이야기를 풀어내었으며, 청년 강영우의 프리즌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강영우를 돕는 자로 준비된 것으로 여기게 됐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서 장애인에 대해 헌신하려 했지만 장애인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한국에 정착하게 된 것이, 두 아들을 양육한 이야기 등을 풀어내었다.

석 권사는 "잠언을 읽으며 아이들에게 지혜를 발견하는 교육을 했다. 자녀교육은 어머니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닌 부모가 함께 해야 한다. 자녀는 가정의 거울이다. 아이들의 행동은 보면 가정에서 어떻게 배우고 가르치는지 알 수 있다. 아버지는 가

정의 머리이다. 아이들에게 좋은 신앙을 심어주려면 아버지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좋은 롤 모델이 돼줘야 한다. 또한 어머니들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며 용서하며 인내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모들은 사회적인 경제적 지위적인 성공 아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삶속에서 이민 와서 정직하게 교회와 이웃 섬기며 성실하게 사는 모습을 봤을 때 자녀들이 배우고 열심히 공부하고 부모들을 존경하게 된다. 부모를 존경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잘 믿는다. 새생명 가지고 사막에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오아시스의 생명주면서 LA의 어려운 이들에게 희망되는 교우들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석은옥 권사는 간증 후 모인 교인들과 함께 찬양을 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박준호 기자)

| | | | | | | | | | | | | | |
|-------------------------------------------------------------------------------------------------------------------------------------------------------------------------------------------------------------------------------------------------------------------------------------------------------|--|-----------------------------------------------------------------------------------------------------------------------------------------------------------------------------------------------------------------------------------------------------------------------------------------------|--|------------------------------------------------------------------------------------------------------------------------------------------------------------------------------------------------------------------------------------------------------------------------------------------------------------------------------------------------------------|--|------------------------------------------------------------------------------------------------------------------------------------------------------------------------------------------------------------------------------------------------------------------------------------------------------------|--|----------------------------------------------------------------------------------------------------------------------------------------------------------------------------------------------------------------------------------------------------------------------------|--|--------------------------------------------------------------------------------------------------------------------------------------------------------------------------------------------------------------------------------------------------------------------------------------------------|--|--------------------------------------------------------------------------------------------------------------------------------------------------------------------------------------------------------------------------------------------------|--|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남가주등둔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온/오프 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sldirock@gmail.com | |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한/미연합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어예배: 오전 9:00, 11:0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9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 |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시(토) lalgcusa@yahoo.com / www.lalgc.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 |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20 주일 3부예배: 오전 9:4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0 주일 5부예배: 오후 12: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수/금요일예배: 오후 2:00(청년)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han.org | |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213)466-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 |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월-토): 오전 5:30 토요일예배: 오전 6:30 EM 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 | | |
| 드림교회 담임목사: 이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영어 2부예배: 오전 11:30 월/온 오프 예배: 오후 2: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626)793-0880, 0200 Fax: (626)793-6412 1305 E. Colorado St., Pasadena, CA 91106 | | 남가주주리더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 목/온 예배: 오후 7:00 새/목 예배: 오전 6:00(월-토) www.scrdm.org Tel: (213)215-8223, Fax: (213)977-1193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 | 남가주사망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10 주일 3부예배: 오전 11:1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45 주일 6부예배: 오후 1:1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 |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전 9:30 새/목 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목 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ohkc.org | | 동중교회 담임목사: 김상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새/목 기도회: 오전 5:30 금요일예배: 오후 7:45 Tel: (213)483-6625, Fax: (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07 www.egkpc.org | | 동양선교회 담임목사: 박형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2부 찬양예배: 오전 9:30 3부 찬양예배: 오전 11:00 4부 찬양예배: 오후 12:30 금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323)466-1234, Fax: (323)466-0816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 |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속에 묻혀서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교회" 목요일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Tel: (213)559-7728 (전화 겸 영상),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 |
| 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목 예배: 오후 1:00 수/목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버니스트리트 예배: 오전 6:30(토) 중, 고, 대, 청년부: 오후 7:30(토) www.samsungchurch.org Tel: (562)890-9800, Fax: (562)890-8044 501 S. Lido St., La Habra CA 90631 | | 새찬양교회 담임목사: 변윤선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대학원생)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www.newpraisechurch.org / ysbnon@gmail.com Tel: (714)826-0100, Cell: (714)844-8377 6269 Ball Rd., Cypress, CA 90630 | | 새생명선교회 담임목사: 김만수 영어 1부예배: 오전 9:30 영어 2부예배: 오전 11:00 찬양경주: 오후 7:00(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목 예배: 오전 11:00(주일) 중, 고등부: 오전 11:00(주일) Tel: (618)922-2449 13005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 |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금/목 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사택: (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 | 아카데미 온누리 소망교회 담임목사: 조묘숙 주일 예배: 오후 2:00 새/목 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626)533-1155 1741 South Baldwin Ave., Arcadia, CA 91007 | | 안디옥장로교회 담임목사: 지윤성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목 예배: 오후 8:00 새/목 기도회: 오전 5:30 주일예배: 오후 8:00 Tel: (818)249-2871, Fax: (818)249-0516 www.iaopc.org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 | 얼빈침례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8:00 새/목 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irlvchurch.org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St., Irvine, CA 92604 | |
| 요셉선교회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목 예배: 저녁 7:30 금/목 예배: 새벽 5:30 새벽기도회: 저녁 7:30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301 S. Kingsley Dr. 2F-B L.A., CA 90020 | |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수/목 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대학원생)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 |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 은혜세계가든: 3659 244번 도로 www.gracem.com Tel: (714)448-6200, Fax: (714)448-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 |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jc.org | |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목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cornestonech.com / e-mail: pastor@cornestonech.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9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 |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문)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청년) 찬양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오후 8:00 www.torrancecp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 |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 |

“세월호 아픔을 희망으로..” 세월호 참사 회복 위한 한국교회연합 출범키로

한국교회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힘을 모은다.

예장 합동과 통합 등 주요 교단과 교계 단체들은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에서 모임을 갖고 '(가칭)세월호 참사 치유와 회복을 위한 한국교회연합'을 출범키로 했다. 한국교회 대다수 교단과 단체가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나누고 치유하려는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 교회연합의 출범은 분열된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회연합은 연합기도회와 모금, 치유사역, 공동 기도문과 성명 발표 등 다양한 사역을 펼친다. 9일과

14일에는 각각 안산제일교회와 서울에서 '세월호 참사 치유와 회복을 위한 한국교회 연합기도회'를 갖는다. 이어 주일인 18일을 '한국교회 애도주일'로 선포하고 전국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불꽃을 모은다. 애도주일 예배에서는 전국 교회 목회자들이 같은 제목으로 설교하고 공동 기도문을 낭독한다.

한국교회의 공동 성명문도 발표된다. 성명에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을 향해 위로의 메시지와 한국교회 및 사회 지도자들의 책임을 묻고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건강한 정신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세

월호 참사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모금운동도 병행된다. 교회연합의 주요 활동은 예장 통합과 합동, 기감, 기성, 기침 등의 교단장이 참여하는 한국교회교단장협의회가 주관한다.

한국교회희망봉사단(한교봉) 대표회장 김삼환 목사는 "세월호 피해자의 치유를 위해 한국교회 전체가 나서야 한다"며 더 많은 교단과 교회의 동참을 호소했다. 김 목사는 "2007년 발생한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 때 피해현장으로 달려간 자원봉사자 130만명 가운데 한국교회 성도가 80만명에 달했다"며 "세월호 참사의 슬픔을 회복하는 데에는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나누고 섬기

고 베풀며 힘을 모으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인웅 덕수교회 원로목사는 "사고 당한 분들의 희망이 헛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면서 "역사의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교회연합에는 현재 예장 통합과 합동, 기감, 기성, 기침 교단과 한교봉, 국가조찬기도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미래목회포럼, 안산시 기독교연합회, 한국교회평신도단체협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교계 주요 단체들은 자체적으로 중·장기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추진 중이다. 한교봉은 향후 2년 동안 '피해자 돌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자원봉사자인 일명 '돌봄미' 모집·교육과 함께 목회자와 사회복지사, 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기 그룹을 꾸려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한국 신학교, 세계 신학도 끌어들이는 자석 역할하라” 총신대 '21세기 개혁교회 선교와 중국' 국제학술대회

“한국의 신학교들은 중국 등 외국 신학생들을 신학자와 설교자로 양성하는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어야 합니다.”

국제 신학연구 네트워크인 '레포(Refo) 500' 대표인 헤르만 셀더하우스(53·네덜란드 아펠도른신학대) 교수가 한국 신학교육의 세계화를 요청했다.

총신대학교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사람 및 경기 양지캠퍼스에서 '21세기 개혁교회 선교와 중국'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에서 셀더하우스 교수는 “종교개혁이 갈뻗아 활동했던 제네바는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여러 지역에서 종교적 신념을 따라 사람들이 망명으로 모여드는 자석 역할을 했던 곳”이라며 “갈뻗아 교수 학교로 지명한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곧 프랑스 등 유럽 전역으로 흩어졌다”고 말했다. 1555년부터 1562년 사이 56명의 설교자가 프랑스로, 10명이 이탈리아 피에몽으로 파송돼 나갔고, 영국 런던과 벨기에 앤트워프, 브라질로 간 설교자들도 있었다고 그는 덧붙였다.

“군대식으로 말하면 갈뻗아는 제네바의 지휘관으로서 군사들을 (타 지역으로) 파병한 것”이라고 평가한 셀더하우스 교수는 “총신대 같은 한국의 많은 신학교들도 중국과 세계 여러 나라의 신학생들을 좋은 교수진과 프로그램을 통해 끌어들이는 자석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드 상원의원, 노봉민 하와이신학대학원 총장 등이 주 강사로 참여했다. 총신대 이사장이자 대외장인 김영우 목사는 “중국은 지금 교회가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나라지만, 목회자 신학 수준은 황무지나 다름없다”면서 “우리 개혁주의 공동체가 효과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총신대에 이어 장로회신학대(총장 김명용)도 12일부터 14일까지 제15회 국제학술대회를 열었다. 워싱턴 몰트만 독일 튀빙겐대 명예 교수의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존 왈러스 아주사 피시픽대 총장과 제임스 맥도널드 샌프란시스코 신학대 총장, 하가 츠토무 도쿄 유니온신학대 교수, 원가 중국 난징신학대 교수 등도 참여했다.

칼빈대학교(총장 김재연 목사)는 지난 8일에 이어 13-14일 경기 용인의 칼빈대 대강당(은천당)에서 '21세기 크리스천 리더십'을 주제로 개교 6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이어갔다. 강사는 줄 메이든블릭 미국 칼빈대 총장과 김세운 풀러 신학대학원 교수, 김상복 헬베티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 총장, 존박 아주사 피시픽대 부총장, 김지호 칼빈대 교수 등.

'리더십 원리'(롬 12:1-8)를 주제로 강연한 메이든블릭 총장은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리더십의 은사를 지니고 있다"면서 "이 은사는 사랑의 분기인 안에서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공동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는 내탓..회초리 맞겠다” 원로목사 200여명 15일 기도회 개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위로하고 한국교회의 갱신을 위한 교계 행사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 소속 원로목사 200여명은 오는 1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한국교회와 목회자 갱신을 위한 회초리기도회를 연다.

올해 104세인 방지일 목사 등 원로목사들은 이날 회초리를 들고 자

신의 종아리를 때리는 참회의 시간을 갖는다. 세월호 참사의 치유는 목회자의 자성(自省)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회초리기도회는 오는 7월 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세월호 참사로 교회도 스스로 갱신이 필요하다 판단에 따라 앞당겨졌다.

원로목사들은 8일 성명을 내 "세월호 침몰사건으로 온 국민이 비통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 원로

목사들은 지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먼저 자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밝혔다.

시흥시기독교연합회는 11일 오후 3시 경기도 시흥시 복지로 신천감리교회(최승균 목사)에서 '세월호 재난구복을 위한 연합기도회'를 연다. 기도회에서는 살신성인의 자세로 승객을 구하다 숨진 세월호 여승무원 고 박지영씨를 비롯해 시흥을 애도하는 세월호 희생자 3명 등 총 6명의 희생자 가족에게 성금을 전달한다. 이어 13일 오후 2시 안산

시 단원구 선부광장으로 근로자 종합복지관에서 예장통합총회(총회장 김동업 목사) 주최로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 추구를 위한 특별강연회'를 연다.

천안중부교회(문용권 목사)는 지난 2일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지원에 써달라며 성금 1000만원을 천안시에 전달했다. 성금은 세월호 침몰사고로 고통 받는 가족들의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 성도들이 마련했다.

“프랑스 교황에 대해 개인교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예장합동총회(총회장 안명환 목사)의 제51회 목사장로기도회 이틀째인 13일 오전 서울 사랑의교회에서는 특별한 주제의 설교가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피터 릴백 미국 웨스터민스터신학대 총장은 “오는 8월 방한 예정인 프란시스 교황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관심이 갖는 것은 합당하다”면서 “교황에 대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교황 방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피터릴백 웨스터민스터 총장, 예장목사장로기도회서

“프란시스 교황에 대해 개인교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예장합동총회(총회장 안명환 목사)의 제51회 목사장로기도회 이틀째인 13일 오전 서울 사랑의교회에서는 특별한 주제의 설교가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피터 릴백 미국 웨스터민스터신학대 총장은 “오는 8월 방한 예정인 프란시스 교황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관심이 갖는 것은 합당하다”면서 “교황에 대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진리의 관점에서 경계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는 만큼 균형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릴백 총장은 프란시스 교황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그는 로마 가톨릭에 대한 계급·계층주의를 타파하고 목회적 마인드로 신자 양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섬기는 지도자를 표방하며, 가톨릭교회 지도자들 안에서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는 프란시스 교황이 이전의 다른 교황과 다른 새로운 메시지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며,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양한 언론을 통해 그에 대한 칭송이 쏟아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프란시스 교황에 대해 경계해야 할 부분 또한 분명히 있다고 릴백 총장은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교황본에 관한 것이다. 프란시스 교황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세워지고 사립들이 그를 따르기를 원한다”면서 “과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게 성경적으로 합당한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그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만인구원설’을 은근히 복음과 연결시키므로써 성경의 가르침을 혼탁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릴백 총장은 “프란시스 교황의 방한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합당하다”면서 “개인교인들은 이 기회를 성경적으로 살고 있는지, 교회의 본모습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성찰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교회의 분열상에 대해 경고하면서 “우리 안에 분열이 있다면 하루 빨리 하나가 되는데 힘써야 한다. 우리가 서로 싸우면 우리는 약해지고 적은 강해질 것”이라며 “우리의 목표는 교황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예수를 향한 진심어린 사랑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 총회장 등 한국교회 지도자 1000여명이 세월호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한다.

한국교회교단장협의회는 오는 21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한국교회지도자 1000여명 금식기도회 한국교회교단장협, 세월호 참사 관련 21일 개최

한국교회 주요 교단 총회장 등 한국교회 지도자 1000여명이 세월호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한다.

한국교회교단장협의회는 오는 21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 위로와 대한민국 회복을 위한 한국교회지도자연합 금식기도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총회장 등 참가자들은 이날 하루 금식하며 행사 순서를 맡기로 했다.

금식기도회에는 예장 통합(총회장 김동업 목사)과 합동(총회장 안명환 목사), 백석(총회장 장종현 목사), 대신(총회장 최순영 목사), 고신(총회장 주준태 목사), 기감(감동회장 전용재 목사), 기성(총회장 조일래 목사), 기하성 여의도순복음(총회장 이영훈 목사), 기침(총회장 김대현 목사)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의 총회장들이 참석한다. 또 각 교단 노회와 남녀 선교회 및 산단체 임원, 전국 시·군·구 기독교연합회 임원 등 1000여명이 함께한다.

“세월호 아픔 함께하며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교회교단장협의회 성명 발표

주요 교단장들이 참여하는 한국교회교단장협의회는 12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함께 하며 한국교회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교단장협의회는 성명에서 “세월호 참사는 인간의 탐욕과 나태함이 빚어낸 인재”라며 “생명을 담보로 이익을 쫓은 무리들과 이를 방조하고 책무를 방기한 정부관료, 정치인 모두 참사의 책임에서 비켜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교

회도 개교회의 성장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사회 곳곳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제대로 살피지 못했음을 고백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교회가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동안 사이비이단들은 세력을 더욱 확장했다”면서 “이를 막아내지 못한 데는 한국교회의 책임이 작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교단장협의회는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음을 고백하고 잘못을 회개하며

나부터 바로 살겠습니다”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와 정부에는 이번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 세월호 희생자 가족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사이비이단규제법 제정 등을 강력 촉구했다.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도 이날 ‘한국교회에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한국교회는 세월호 참사를 하 나님의 지엄하신 경고의 메시지로 경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권의 노예가 돼 갈등과

분열로 하나가 되지 못한 것과 공교회를 사유화해 치부하고, 족벌계급화 하나님께 도전한 무서운 죄악을, 재를 뒤집어쓰고 통회 자복하는 회개가 있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기독교시인연대, 기독교회서연합, 참소리연합, 기독교부패척결연대, 한국목회자개혁총연합회 등 기독교 단체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구원과는 기독교단체가 아니라 유병언 교주의 사교집단으로 즉각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 총회장 등 한국교회 지도자 1000여명이 세월호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한다.

한국교회교단장협의회는 오는 21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 | | | | | | | |
|-------------------------------------------------------------------------------------------------------------------------------------------------------------------------------------------------------------------------|-------------------------------------------------------------------------------------------------------------------------------------------------------------------------------------------------------------------------------------------------------------------------|-------------------------------------------------------------------------------------------------------------------------------------------------------------------------------------------------------------------------------------------------------------|------------------------------------------------------------------------------------------------------------------------------------------------------------------------------------------------------------------------------------------------------------------------------------|--------------------------------------------------------------------------------------------------------------------------------------------------------------------------------------------------------------------------------------------------------------------------------------|--------------------------------------------------------------------------------------------------------------------------------------------------------------------------------------------------------------------------------------------|------------------------------------------------------------------------------------------------------------------------------------------------------------------------------------------------------------------------------------------------------------------------|------------------------------------------------------------------------------------------------------------------------------------------------------------------------------------------------------------------------------------|
| 백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봉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일 예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 벨연교회 담임목사: 진용태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영): 오후 1:45 EM: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청소년부: 오후 10시, (토) 오전 11시 유치, 유아부: 오전 10:00 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706 Wilmer Rd., Hpkinton, MA 01748 |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Tel: (704)529-0900 / 0998(렉스쿨)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 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용교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Tel: (360)458-0191 6007 Pacific Ave, Ste P O BOX 8358 Lacey, WA 98509 |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scattle.org |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혜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7755 Kipling St, Arvada, CO 80005 www.kpcod.org |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9: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사택: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kpcscattle.org |
| 앵커리지영림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20 Briarwood St, Anch, AK 99518 | 엘파소영림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Tel: (915)755-1490, 사택: (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 (251)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ksham, PA 19044 |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새벽예배: 오전 11:00 주일아침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54)634-8705, (254)501-4933 408 N. 8th St, Killeen, TX 76541 |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EM) 영어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06)394-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 주역신학교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45 수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us Rd, Richmond, VA 23235 | 큰무리교회 담임목사: 나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www.josephvision21.org 매일저녁7시(금, 토, 주일) Tel: (410)203-0516, Fax: (410)203-0512 3264 Corporate Court, Ellicott City, MD 21042 | |
| 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정태근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새벽 6:00(토) Tel: (253)565-1069 7461 S. Verde St, Tacoma, WA 98409 | 타코마새생명교회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한/영)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한) Tel: (253)535-6207, 531-8424 Fax: (253)539-1432 9702 E. B. St., Tacoma, WA 98445 |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수명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2:1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53)634-6675, Fax: (253)474-9515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 템프장로교회 담임목사: 윤정용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 3부예배: 오전 10:50 주일 4부예배: 오전 12:10 주일 5부예배: 오후 2:00(영/한)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후 6:30(토) www.tkpcz.com Tel: (480)726-0181, Fax: (480)857-3997 1150 S. Dobson Rd, Chandler, AZ 85286 |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2:00 청년예배: 오후 7:45 수요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j.org | 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후 6:00 Tel: (860)643-4738, Fax: (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2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 |

선교의 창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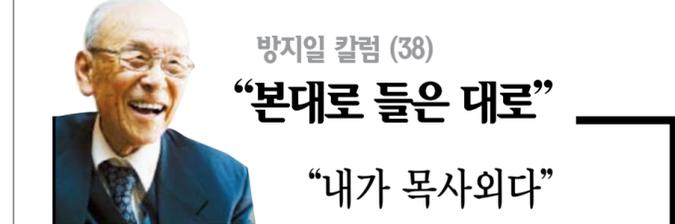
선교의 기초가 되는 밀알 원리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한 달째가 되겠다. 하지만 우리 조국 한국에는 여전히 아픔이 계속되고 있다. 이 여진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해외에 있는 모든 한인들에게까지 전달되고 있다. 원컨데 속히 이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와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향한 희망찬 발걸음이 띄어지기 기대한다. 중요한 것은 모든 분야에 기본과 상식으로 돌아갈 것이다. 관치(官治)나 인치(人治) 사회가 아니라 메뉴얼(manual)에 따른 사람 중심의 사회의가 도처에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주의 법도이다. 한국선교도 마찬가지이다. 사역

켄드릭(Ruby R. Kendrick, 1883-1908)이라는 여 선교사이다. 루버 켄드릭은 미국 텍사스 남감리교회의 독실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1907년 9월에 남감리교회 여자 외국선교부의 파송을 받아 조선에 왔다. 그녀는 황해도 개성에서 한국말을 배우면서 사역을 하다 24세 젊은 나이로 순교했다. 조선에 온지 불과 8개월 만이다. 그녀는 "만일 나에게 천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녀가 죽기 전 부모님께 보낸 한통의 편지는 사랑들에게 많은 감동을 준다.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끌려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세요"라고 하였다. 그녀의 생은 한반도에서 무슨 사역을 했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짧았다. 하지만 그녀는 생명을 바쳤다. 이 죽음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수십 배의 선교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그녀의 마지막 편지는 바로 텍사스 웨잇청년회의 연합대회 기간 중에 배달되었다. 편지를 읽은 청년들은 그녀의 뜨거운 선교열정에 큰 도전을 받았다. 그리고 그녀가 죽은 뒤 3년 동안 텍사스 웨잇청년회에서는 20명이 선교사로 자원했고 이들 중에서는 한국으로 파송된 이들도 많이 있었다. 이처럼 믿음의 제사는 사역을



방지일 칼럼 (38)
“본대로 들은 대로”
“내가 목사외다”

한국 여행단이 한 30명 왔다. 어떤 모델에 투숙하게 됐다. 그중에 믿는 이가 있었고 그들 중에는 목사도 있었다. 주일이라 여행 중에 믿는 이들은 예배를 드리고 관광이라도 하자는 제의가 있었던 모양이다. 목사까지 도합을 알게 되어서이다. 모델 주인도 믿는 사람임을 안 목사는 주인에게 성경 읽으면 좀 빌려주시오 하기에 예배 인도할 이가 계산가로 됐다. 내가 "목사외다" 하더라도! 목사시면서 여행에 성경책을 소지하지 않잖나 하는 심정이 들더라고! 목사님이 성경책을 안 가지시오 여행해도 괜찮은가요? 내게 묻는 것이었다.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좋을까?

나는 우리 집에서 성경공부를 월요일마다 38년 째 하고 있다. 혹 어떤 때는 성경책 없이 오시는 분이 있다. 어디 다른 일보다가 시간이 되어 올 수도 있었고 그 정령이 그렇게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무장하지 아니하고 전장터에 나가갈 병사는 있을 수 없다. 목사는 고사하고 모든 신앙인은 출타함에 있어 반드시 성경을 휴대함은 마땅한 일이다. 성경은 매일같이 보아야 하는데 성경을 여지 못하고 다닐 수 있겠는가. 신앙인은 전사, 병사에 해당한다. 병사는 군기는 휴대하게 되어 있다. 말씀으로라야 마귀를 이기는데 이 말씀의 무기없이 다닐 수 없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도 있거니와 문자화한 성경책만 읽는 것은 아니나. 말씀을 묵상하며 주야로 말씀에 깊이 말씀을 의욕이 좋은 무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욕에 있는 동안 말씀을 손에 쥐고 다니는 것은 정당한 일이요 신앙인의 본분이다. 이런 원리 하에서 말씀의 선포자인 목사가 성경을 빌려 예배드리러 한다면 크게 오손이 되는 일이라 하겠다. 다만 그 본인의 정령이 여행 중에 잃어버렸다면 다른 사정이 있을 수는 있겠다. 그 자신에게 우리는 지나친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원칙만은 알아야 할 것이다. 어찌 신앙인으로서 말씀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목회자는 모든 성도로 하여금 말씀을 필히 가지고 다니게 교훈하여야 한다.

나는 어느 날 프랑스에서 온 친척아이가 왔다기에 롯데 호텔에 갔더니 기도하여 달려면서 성경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그 기특함을 속으로 찬하하였다. 그렇게 신중하게 보일 수가 없었다. 외국가서 고등학교 대학을 공부한 지성인으로서 그렇게 말씀을 휴대하고 단념을 볼 때 그 어찌 신중하지 않겠는가.

“내게 천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며,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If I had thousand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Ruby R. Kendrick).

의 기초가 불분명하고 사람 눈치를 보는 사역은 모래위에 지은 집과 같다. 이는 언제 세월호처럼 무너질지 모른다.

한국선교의 기초가 되는 신앙 원리는 무엇인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다. 이를 현상적으로 보여준 곳이 있다. 서울 합정동 양화진 있는 외국인 선교사 숙소였다. 여기에는 조선에 와서 선교하다 돌아가신 선교사와 평신도들의 묘가 167기나 있다. 그렇게 크지 않은 한반도에 지난 129년 동안 3000여명의 선교사, 비공인 1220여명이 와서 오신 한국의교회 터를 놓았다. 그들은 한마디로 우리 민족을 위해 썩어지는 밀알이 된 것이다. 그 기초 위에서 오늘의 한국교회와 한국선교가 있다. 따라서 이렇게 민족적으로 어렵고 시대적으로 산적한 난제들에서 우리는 주위를 두리번거리기보다 선교의 원천인 주님 앞에 설 필요가 있다. 나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들을 산화한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며 우리를 추서보아야 한다.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가는 방향이 틀리는 않는지?” 내 사역은 영적으로 견고한지?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 뜰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육신생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 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눈앞에 어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를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녀는 아직 한국말을 하지 못했지만 아이들과는 사람이란 언어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이렇게 재미있게 선교사역을 시작하던 중 이듬해인 1908년 6월 9일에 병이 난 것이다. 당시 개성에는 서양병원도 없었으므로 서울 제중원으로 급히 옮겨져서 열흘 뒤인 6월 19일 불꽃 속의 삶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녀는 죽기 전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회원들에게 열씩, 스톱씩, 십씩 아집처럼 우리 한국으로 나오라고 전해주

얼마나 많이 오래했느냐에 비례하지 않는다. 헌신자의 순전한 믿음과 태도에 달려있다. 성경께서 그것을 쓰시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양화진의 Ruby R. Kendrick같은 선교사 외 헌신한 이름 모를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었다. 한국교회는 그들의 탐과 눈물과 생애 위에 서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늘 일본주의와 쾌락 그리고 물질주의와 신앙적 절대기준이 무너져 가는 이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을 어디에 놓아야 하는가? 우리는 더 나은 선교나 목회를 위해 출중한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더 많은 이론과 방법들도 요구된다. 그러나 아무리 천기(天氣)를 읽는 제갈량(諸葛亮)같은 전략이 있고 첩단의 무기로 장착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운용하는 사람이 십자가의 믿음으로 서 있지 아니하면 무용하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다. 주의 사명을 위해 우리의 생명까지 담보할 수 있는 신앙적 기초와 원리가 있다면 무엇인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12:24).

이메일: jrsong007@hanmail.net

나도 믿어요, 나는 집사예요, 장로예요, 권사예요, 목사외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 전에 상대가 당신은 믿으시는 이신가요 하면서 그 어느 면에 신앙인임을 드러내는 참모로 주님의 제자로서 값있는 삶의 증인이 됩시다 가장한 인물인 것이다. 어떤 목사는 지방의 교회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후에 한 분이 와서 “목사님이 아니신가요” 하더라. 어떤 면으로 보여졌는지 그렇게 말을 들으면서 두렵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하더라! “내가 목사외다” 성경 빌리러 온 이에게 예배인도 할 목사님이 계산가요? 물음은 자기 교회 목사님을 소개하려고 하였는데 “내가 목사외다” 자신의 소개로 목사임을 알았는데 목사가 성경이 없이 다니다니? 하는 생각을 하였다. 이 이야기에서 이 글을 썼다.

여행자가 칫솔 치약을 휴대함은 상식이다. 지금은 타올 비누 휴지 등은 가는 곳마다 있으니 지금은 휴필요 없다 하겠으나 자신만이 사용하는 칫솔 치약 면도기는 휴대할 줄 알면서 성경을 읽는다면 가진다함은 안된 일이라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한다. 자신이 교회 책임자로 성경책이 없어 빌리는 일과 성경책을 퍼 읽기에 믿으시는 이로군 하여 그 직무까지 알게 하는 두 일을 놓고 전자보다 후자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임은 두말할 것도 없이 드러난다.

(1996년, 3권)

| | | | | | | |
|---------------------------------------------------------------------------------------------------------------------------------------------------------------------------------|----------------------------------------------------------------------------------------------------------------------------------------------------|-------------------------------------------------------------------------------------------------------------------------------------------------------------|-------------------------------------------------------------------------------------------------------------------------------------------------------------------------------|------------------------------------------------------------------------------------------------------------------------------------------------------------------------|------------------------------------------------------------------------------------------------------------------------------------------------------------------------|-----------------------------------------------------------------------------------------------------------------------------------------------------------------------------------|
| <p>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p> | <p>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p> | <p>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p> | <p>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p> | <p>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00 사백기도회: 오전 5:0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 <p>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p> | <p>든든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일야회: 오후 9:00</p> |
| <p>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후 2:00 주일3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8:00 사백기도회: 오전 6:00(매일)</p> | <p>명성교회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후 1:20 사백기도회: 오전 4:30 (1부부터 4회)</p> | <p>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9: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7:30 (절은이름 위한 2세대예배)</p> | <p>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찬양예배: 오후 3:30 사백기도회: 오전 5:00 사백예배: 오전 6:30</p> | <p>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사백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없습니다)</p> | <p>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근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없습니다)</p> | <p>수영교회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5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12:20 주일5부예배: 오후 2:00</p> |
| <p>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p> | <p>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삼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p> | <p>시은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사백예배: 오전 5:00(월-토)</p> | <p>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p> | <p>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50 주일찬양예배: 오후 3:00 사백기도회: 오전 5:00/6:00</p> | <p>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심야기도회: 오후 8:30</p> | <p>안암 제2교회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심야기도회: 오후 8:30</p> |
| <p>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사백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p> | <p>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p> | <p>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기도회: 오후 9:30</p> | <p>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중승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p> | <p>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p> | <p>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사백기도회: 새벽 5:30</p> | <p>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p> |
| <p>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임진택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성경지도: 오후 8:00(월, 화, 목, 금) 금요기도회: 새벽 4:00, 5:00 금요일야회: 오후 7:30</p> | <p>브라질 서물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사백기도회: 오전 5:40</p> | <p>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8:00 사백예배: 오전 5:45</p> | <p>브라질 새사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주일5부예배: 오후 8: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p> | <p>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5부예배: 오후 12:00</p> | <p>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저녁 7:00 수요성경강좌: 저녁 9:00 7/14중대기도회: 아침 7:40 수요예배: 오후 6:00 주일5부예배: 오후 9:30(주일)</p> | <p>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근 목사 파라과이선학대학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1, 2, 3, 부 스터디일 열거)</p> |

선교 편지

말레이시아

선교 동역자 여러분께

특색의 현지교회

한국 교회의 전유물로 알았던 특별새벽기도회가 말레이시아 교회에서 2주간 이뤄졌습니다. 새벽 5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자동차가 몰려드는 모습에 감격합니다. 이곳의 중국계와 인도계 외에도 다양한 해외 유학생들이 뒤섞인 특별새벽기도회는 꼭 하늘나라를 연상하게 합니다. 그 중에 많은 분들은 금식을 겸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에 임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의 초점은 자신만의 소원이 아닌 세계를 가슴에 품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일으키시는 새로운 선교적 열기가 한 교단이나 한 교회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모든 복음적인 교회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의 아시아 일꾼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지난 몇 년간 세계 복음화가 혁신적으로 이뤄지는데 특히 아시아의 선교적인 참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교회를 적극적으로 선교에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말레이시아 신학교

한 15년 전에 선포되는 이은 무 선교사님이 말레이시아에 말레이어로 진행되는 신학교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고

니다. 15년이 지난 지금에도 현지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말레이시아의 토착민 위주로 계속 든든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말레이어 신학교 학생들과 함께

말레이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부의 저항을 받습니다. 그러나 토착민이나 이주민들에게는 말레이어를 써도 전혀 제재를 받지 않는 특이한 사회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쓰던 인니어가 말레이어와 흡사한 이유로 말레이어 신학교에 가서 일주일 집중 강의를 하면서 서서히 이 나라의 종교적인 특성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현지의 여러 교회와도 구체적인 협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세워지는 지도자들이 말레이어 사용하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예배가 살아나고 제자를 만들어 내며 이 나라를 복음으로 살리는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선배의 사역적인 선견 지명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선교가 많은 진전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교회를 통해서만 확산되는 복음이 아니라 기독교 대학, 기술학교, 지역개발 및 평범한 비즈니스로 믿

음의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많은 젊은이들이 개종이 열매로 맺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변화된 젊은 일꾼

들이 아시아 타 지역으로 퍼져 나가면서 복음은 국경을 건너서 아름답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공과대학을 졸업한 형제, 자매들이 국제적 기업에 취직하여 아시아 타 지역에 살면서 실력으로 또한 삶과 행실에서 그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퍼져가는 모습은 한 단계 발전된 아시아 선교의 현주소입니다.

동역자와 함께하는 25년



말레이어 신학교 학생들과 함께

선교사역 25년의 기쁨은 훈련시킨 제자들이 성숙하여 귀한 일꾼으로 서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때로 인도네시아 방문을 하면서 예전의 제 학생들이 이제는 선교사로, 단체장으로, 교수로, 교단 지도자로 열심히 사역할 때 기쁨이 배가 됩니다. 선교의 진정한 열매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시간이 지나가며 가슴으로 느낍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섬은 가장 미진도 중족이 많은 무슬림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제가 예전에 시작했던 수마 레슬링 기도사역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또한 함께 일하던 동역자가 일을 지속시켜 나가는 것을 보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곳저곳에서 함께 기도하며 꿈을 나누던 제자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을 전개해 나가는 소식을 듣는 것이 기쁨입니다.

오래된 동역자

마찬가지로 필리핀에서는 저희 부부가 90년부터 초기 사역을 하던 지역입니다. 오랜만에 방문했던 필리핀에서 서서히 선교운동의 열매가 맺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필리핀의 오랜 국회의원이었다던 라미레즈 위원은 이제 민족

기도운동을 적극적으로 맡아서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안과 의사인 멜로나 씨도 필리핀 자국인 선교과송의 기초를 놓는 일을 위해 기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함없이 섬기시는 모습에 절로 기쁨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여어내시는 네트워크는 사역의 기초가 됩니다. 결국은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준



반동의 기독교 대학에서

비된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족 소식

세월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국제본부 이전을 말레이시아로 한지 일년 반이 되어갑니다. 저희 가족은 글로벌디아스포라입니다. 자녀들이 다 뿔뿔이 한국으로, 인도네시아로 또한 시카고로 흩어져서 하나님 일을 하거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가족들이 흩어져 있지만 매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녀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있습니다. 선애는 한국에서 일하며 뉴욕의 Parsons 대학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은애는 인도네시아 반동의 BAIS 국제학교 교사로 사역하며 곁들어 무슬림 사역을 배

우고 있습니다. 준수는 위튼 Wheaton 대학 3학년을 마친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감사한 것은 자녀들이 같은 마음으로 저희를 격려해주는 것이 힘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선교적인 일을 하기 원하는 자녀들의 모습에서 진정 하나님께서 키워주셨다고 느낍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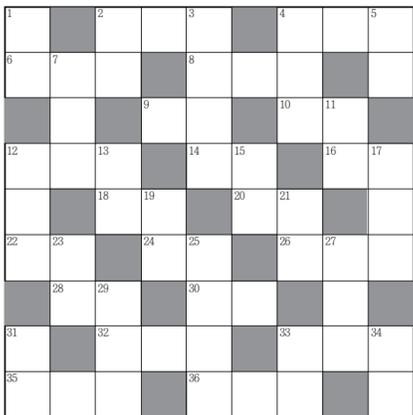
기도 제목

1. 국제본부 사역을 통해 현지 선교사들을 세우도록
2. GP가족대회의 아름다운 사역과 결과를 위해서
3. 아시아의 현지 선교기관 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4. 34개국 342명의 GP가족들이 주님 손에 시대적 쓰임을 받으며 선한 영향력을 풍기도록
5. 흩어진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도록

백운영, 백영은(선애, 은애, 준수) 선교사 드림
이메일: email: gypaek@hotmail.com

십자말 • Cross Word (37)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가로 푸는 열쇠>

2. 성부, 성자와 함께 3위 일체인 하나님 곧 성령을 말한다(요15:26).
4. 상수리나무(호4:13).
6. 보석의 하나. 사파이어(겔28:13).
8. 꽃이 없다는 나무의 열매(약3:12).
9. 심령이 미묘한 작용으로 얻어지는 감정(왕하2:9).
10. 재물이 넉넉함(눅6:24).
12. 오직 하나인...(막12:29).
14. 외아들(창22:2).
16. 잘못된 것에 대하여 나무라거나 처벌함(고전6:12).
18. 결단하여 정함(왕상20:40).
20. 늦쇠로 만든 밭그릇(숙14:20).
22. 자기. 제 몸(딤후4:16).
24. 약속 따위의 기초. 규약의 조항(요8:6).
26. 부정한 남녀관계를 행하는 자(계22:15).
28. 대궐의 안(시96:8).
30. 배가 부르게 잔뜩 먹음(잠13:25).
32. 인천 앞 바다의 작은 섬. 달포리섬(지리).
33. 요시야왕이 성전에서 얻은 율법책에 대하여 여호와께 묻기 위하여 보낸 사람 중 한명(왕하22:12).
35. 성령이 충만한 7집사의 한 사람. 돌에 맞아 순교함(행6:8).
36. 닭의 베이비.

<세로 푸는 열쇠>

1. 끈이 들음. 밧고 들음(잠29:12).
2. 아름다운 보배의 옥돌(출28:11).
3. 문서를 다루는 사람의 행동이나 실적을 지켜 봄(대상29:6).
4. 남편의 사후 재가하지 않고 죽은 남편을 생각하며 자녀를 잘 양육하는 여자(딤후5:3).
5. 아무 이로운 것이 없음(히7:18).
7. 양감음 하는 날(렐46:10).
11. 재물을 흠뻑어 지내는 제사(민8:13).
12. 세력이 있는 사람(행13:50).
13. 보다 더. 제법(겔10:10).
15. 같은 일을 잇달아 짓게(잠29:1).
17. 소송사건을 심리하여 판결. 결정하는 사람(미5:1).
19. 이성 관계에서 성적 순결을 보존하는 일(호5:7).
21. 길을 떠나 감(산10:7).
23. 귀신을 모신 집(욥3:5).
25. 마른 포도를 넣어 만든 떡(대상16:3).
27. 음을 조화시켜 미감을 일으키는 예술가(상식).
29. 정월에 해당하거나 담당한 반(대상27:3).
31. 섬의 손자요 아람의 큰 아들(창10:33).
33.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마24:25).
34. 솔로몬 성전에 세워진 두 개의 기둥 중 하나(왕상7:21).

십자말 정답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현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상담 환영!!!
300여종 이상 디자인 보유!
2014년 달력주문 받습니다.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사모칼럼//
회복된 사모, 행복한 사역



황순원 사모
(CMF사모사역원 원장)

9. 사모의 행복 가꾸기
-사모의 사명 가꾸기(1)

사모의 사명은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모는 행복한 여인입니다. 그 이유는 전편에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바울은 사명자의 행복을 철저하게 누린 자의 대표적 인물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하여 행복한 사명자가 되었나를 한 번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바울은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열정을 쏟은 자였습니다. 행9:1에 보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듯 자아가 강하고 기독교에 대하여는 원수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대낮에 너무나 환한 빛에 쫓겨라지고 말았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 뒤에 그는 고난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강한 훈련을 받는 것이 그에게 결

팍으로 공격하는 마귀들의 공격에 그만 쓰러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사모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될 때 다 때려치우고 싶은 심정이 됩니다. 아무리 큰 사역을 하였고 많은 은사를 나타냈던 자들도 이와같은 자신의 공격 앞에는 맥을 추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위기에서도 자신의 사명감을 더욱 고취시켰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갈1:10). 목회를 하다보면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지혜가 필요하면서도 변질되지 않은 순수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국 초대교회 때는 성도들이 목회자의 권위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교회가전을 할 때에도 이명서를 첨부해야 했습니다. 또한 징계제도도 있어서 성도들을 견책하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한인들이 드문 지역에는 한사람이 귀하므로 교회에 들어오는 교인들을 애지중지하다보면 성경대로 올바른 지도를 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이용하는 성도들은 자기가 싫으면 이유는 어디에 있다 해도 교회를 이전하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이런 교회 안의 악습은 목회자의 사명감을 흐리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부르신 자가 누구인가를 날마다 재인식하는 것이 사명자의 사명을 더욱 순수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선물은 어떤 자격에 기인하지 않습니다. 단지 선물을 주는 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선물을 받고 싶어도 주는 자가 없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선물의 성격을 강조해서입니

하나님의 부르심 확신 있어야 사명 감당하는 행복 느껴
쓰임 받을수록 하나님의 종인 자신의 존재 깊이 알게 돼

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서신들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모들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리고 고난이 늘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수록 사명감을 다시 재정립하기만 한다면 더욱더 보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바울 서신마다 제일 서두에 자신을 소개하는 단어들을 자세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노니..."(롬1:1).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고전1:1). 이처럼 바울은 누가 자기를 불렀는지 또 그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었음도 재확인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모들의 사명감을 흔들여 놓는 것은 부르신 자가 누구임을 확실히 알지 못하는데 있습니다. 부르심의 목적과 이유를 확실히 할 때 힘이 솟아납니다. 그 어떤 난관도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게도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달려가던 바울이 어느 날 변신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큰소리하며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가슴속으로 꿰뚫히며 비슷한 자들을 향하여 바울은 담대하게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자신을 불렀다"(갈1:1).

그렇습니다. 사모들은 목회를 돌다가 때로는 자신감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남편의 약점으로 성도들에게 편찬을 받기도 하며 또는 자신의 무능함이 드러나 스스로 사모의 자격도 없으면서 무슨 사역을 하겠다고... 하면서 안

다. 그래서 바울은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기쁨이 넘친다고 표현합니다. 육중에 갇혔을 때에도 오히려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권할 수 있었습니까.

사모의 사명은 누가 주신 것인가를 날마다 재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난관 앞에서도 이 기쁨과 행복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을 행복하게 한 것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성령의 강한 역사가 따르게 됩니다. 불치병이 낫는 사건, 때로는 우연히 내뱉은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일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재인식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경우 더욱 더 그러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해 표현하기를 만사되지 못해 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사역을 하면 할수록 그는 자신이 어떤 자임을 철저히 깨닫고 호소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자신이 어떤 자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부르심의 목적과 부르신 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어 항상 겸손할 수 있습니다.

쓰임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신의 존재를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의 사신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으며 또한 종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를 가리켜 행복한 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hwangsunwon@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월 거룩한 성전(엡2:11-22)찬503장

우리 구원의 전반 실체를 보여주는 본문은 무엇을 말할까? 첫째, 구원받기 전 상태는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11). 이스라엘과 구원된 이방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과 상관없는 자로 소망도 하나님도 없는 곧 저주받은 죄인이었습니다. 둘째,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담이 무너져 이스라엘의 약속이 나의 것이 됐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13).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돼 하나님 교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

수 안에서 신분의 변화를 주장하며 거기에 상응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거하시실 처소 곧 성전과 성산입니다(33). 그의 임재가 항상 머무는 곳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완성된 성전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기까지 지어졌습니다.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를 전심으로 사랑하는 생활을 합시다.

화 하나님 전신갑주(엡6:10-24)찬500장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싸움은 절대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음을 본문은 어떻게 보여주었습니까? 첫째, 천상에 있는 보편 교회에 속했어도 우리는 잠시 동안 계세가 많은 세상에서 영전을 실행해야 합니다(11). 그 싸움은 우리의 제일 원수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 바로 서 그의 전신갑주를 입는 일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마련하신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취하여 무기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 마

련하신 모든 무기를 오늘도 취하여 입는 수고를 드러야 합니다. 둘째, 준비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인가요?(13) 진리, 구원, 의, 평안, 믿음, 말씀, 기도입니다. 이 7가지는 서로 의존적인 것으로 신자는 취해 입는 일을 순간순간 힘쓰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들로 요약하면 말씀묵상과 규칙적인 기도생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바로 선 자만이 나아가 싸울 수 있습니다. 바울의 명령을 따라 영전에 승리합니다.

수 그리스도인이 힘쓸 것(골3:1-5)찬486장

구원받은 신자가 언제나 힘쓸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1). 위의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 곧, 그의 뜻과 그의 성품입니다. 바울은 하늘의 것이 모두 가져져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며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목표에 이르고 그 말씀에 성실한 학도가 되기 위해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둘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5). 위의 것의 반대는

땅의 것 곧, 세상에 속한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인생의 자랑입니다. 여기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으로 요약합니다. 이런 것에 익숙한 우리의 지체는 의의 병기로 그리스도께 드리는 헌신만이 우리가 가야할 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육체를 위해 행하신 공로를 알고 인정하며 사는데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나의 모든 지체를 주께 드러 주의 도구로 살아갑시다.

목 이신칭의의 진리(행18:12-23)찬343장

개신교의 중심 구원진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진리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첫째, 영적 혼란 중에 일어났습니다.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케 한다 하기로"(24) 이방인의 회심을 둘러싸고 유대의 거짓교훈이 활거져 혼란한 초대교회에서 생겨났습니다. 진리로 거듭난 영혼이 진리에 뿌리를 두지 않을 때 이신칭의 교훈이 마음을 혼란케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도리어 성령의 뜻을 공식화하는 기회였습니다

다. 둘째,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리라"(35) 안디옥에서 파송받은 바나바와 바울 일행은 가는 곳마다 전파한 것이 주님의 말씀 곧, 복음인 성경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사도의 증거대로 구약계시에 뿌리를 두고 신약에 나타난 이신칭의의 계시였습니다. 선교는 이를 가르치고 전파함을 중점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대위임령의 구체적 골자이기 때문입니다.

금 성령의 감동(행 21:1-16)찬181장

성령의 감동으로 진행된 사도의 사역은 바울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첫째,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는 결심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었습니다(4). 그런데 제자들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의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동일한 성령이 어떻게 이런 충돌을 가져왔습니까? 한 성령의 한 감동이지만 역사와 은사는 다양합니다. 생물체의 활동처럼 잘짜여진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둘째,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바울

은 자기 사명을 다하기 위해 작별합니다(5). 그때 제자들과 함께 무릎 꿇은 사도의 모습은 체면치레가 아니고 겸손과 복종과 위탁의 모습이었습니다. 셋째,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이 성령의 감동을 막는 일이었는가요?(11) 성령은 충동되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예언대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불타나 그것이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손으로 로마에서 복음전하는 것을 볼 때 성령의 오토타한 감동을 따라감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토 바울의 복음(행26:19-32)찬182장

바울의 복음은 구약에 있었던 것이 나타난 것뿐임을 본문은 어떻게 말할까? 첫째, 선지자와 모세란 구약 계시의 요약입니다(22).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나타난 계시는 그리스도 한 분에게 모아집니다. 바울은 구약에 계시된 구속을 그리스도와 관련시켜 증거했습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의 책이 아니라 신약에서 완성된 그리스도의 구원계시이기에 신약의 복음의 빛 아래서 해석하고 행해야 합니다. 둘째, 바울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표현한 15절은 놀랍습니다. 죄인의 괴수라고 말한 그가 자기를 본받으라고 소리칩니다. 그는 삼중천에서 펼쳐지는 복음의 세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자신이 교회의 생물을 주창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소원하는 그의 목표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형상 곧 의와 인과 신의 형상으로의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가 나갈 원리와 방법이 이것입니다.

신규 변경 추가 변경전 전화번호 ()

전미주와 해외
44개국에 복음을
실어 나릅니다.

전미주 및 해외한인
교회 주소록 수록 신청서

교회 기독교 기관, 기독교인론
선교회, 신학교, 기도원 및 수양관

보내실곳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LA :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 mail : LA@chpress.net

| | | |
|----------------|---------|---------|
| ① 교회(기관) 이름 | 한글: | |
| | 영문: | |
| ② 교회(기관) 주소 | | |
| ③ 교회전화 & 팩스 | Tel.() | Fax.() |
|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 한글: | 영문: |
| ⑤ 사택주소 | | |
| ⑥ 사택전화 & 팩스 | Tel.() | Fax.() |
| ⑦ E-mail Add. | | @ |
| ⑧ Web Add. | | http:// |
|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 | |

※위의 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로 보내주시시오 ④번은 해당사항에 표시를 아세오

하나님 은혜 그 역사의 재발견
성지순례 선교여행
Pilgrimage Holyland Mission Vision Trip

순례코스 일정 MISSION VISION TRIP

- A 코스: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출애굽 여정따라) 11박 12일
- B 코스: 터키 그리스 베트남 (바울의 전도에 따라) 11박 12일
- C 코스: 프랑스 스위스 독일 체코 이탈리아 (유럽 종교개혁지 탐방) 11박 12일

- 1) 멕시코 칸쿤(유카탄 반도) 8쿠바
- 2) 페루 아마존(잉카문명)
- 3) 남미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 4) 알라스카(에스키모)(인디언)

세계성지문화연구소 중동북아 선교회
World Holy Land History Culture Institution & Mid East North Asia Mission

소장 권해수 선교목사
Chief Rev., Jason H. Kwon

757 E. Main St. W., 212 Lansdale, PA 19446
TEL (267)372-8537 FAX (208)485-1013
Email: jasonkwon777@yahoo.com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내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LA GUEST HOUSE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길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우크라이나 이야기들 (3)



오금옥 선교사
(조지아 롬한인교회)

기차를 타고 오가는 길, 해바라기 꽃밭이 넓습니다. 땅이 좋아 키들이 훌쩍 훌쩍 큰답니다. 이곳이 '빵바구니'라고 불리는 이유는 소련 시절 이곳이 농사짓던 집단농장이어서랍니다.

박운갑 선교사님은 이런 시골에서 고려인을 발견하면 소그룹 성경공부를 시작합니다. 크리미아보그 교회 외에 2-4곳(니콜라이브, 스니기료브스, 레닌스코, 아벤스폴로보)에서 격주로 성경공부 모임을 가지며 복음의 지경을 넓히며 돌보고 있습니다. 함께 방문하자고 하시는 데 시간관계로 다음 기회로 미웠습니다. 그동안 차 없이 버스로 이동하느라 많이 불편했지만 이제 차도 마련해 곳곳에 복음전파를 하게 됐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니콜라이브, 스니기료브스 교회는 알렉 목사님

인데 군데군데 찢어지고 헤어져 버릴거였습니다. 공원 다람쥐의 숭바꼭질 장소로, 돌아다니는 마른 개(살찌고 기름진 개는 보지 못했다)



정교회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 친지들과 함께

니다. 그곳에서 만난 젊은이들은 우크라이나가 서구화·유럽화 되기를 오랫동안 갈망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체감온도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실제적으로는 많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크리미아보그 도시에서 만나본 고려인 할머니는 구소련 시대를 그리워했지만, 적당히 일해도 급여가 있고 휴가와 집이 보장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에는 월급으로 소치, 알타, 오데사에서 한 달씩 휴가를 즐길 수 있었는데 지금은 돈이 많이 들어 그리 하지 못합니다. 휴가 때는 하루에 6번 먹고 놀며 춤추게 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휴가로 먹고 놀고 즐기며 백년 후 자손들의 혜택을 미리 당겨 산 셈이라고

코의 동상이 대학교 정문을 근엄한 눈빛으로 응시하고 있습니다. 공원 안에는 아기자기한 카페 집과 익살스런 표정의 할머니 조각도 있어 쉼브첸코 공원을 찾는 발길을 반깁니다.

민족성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는 말탄 흐멜니츠키 동상을 성 스페이아 성당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흑해 북쪽의 스텝지역은 오랫동안 아시아와 유럽을 오가는 문화의 교차로였지요. 이 지역을 지배한 최초의 세력은 스키타이족으로 알려져 있지만 루시라고 알려진 스칸디나비아인들이 이동해온 후, 이 지역은 하나의 지배세력 아래 통합됩니다. 우크라이나는 현대사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폴란드와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지만 자치주의를 유지하고 있음은 대단하다고 할지...

민속마을의 정교회 혼례식

키예프 북쪽의 신학교 가까운 곳에 민속 마을이 있다고 해서 박 선교사님 내외와 같이 민속촌을 방문했습니다. 민속촌 전통 정교회 앞을 지나는데 마침 혼례식을 하고 있어 들어갔습니다. 일반 결혼식과 다르게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제가 교회 안을 빙글 빙글 돌며 하는 전통혼례 의식을 하객들과 함께 지켜 보았습니다.

예식을 방해하는 어느 누구도 없는 결혼식은 장엄하고 아름다웠습

공원 통과하는 대형 가스관, 집 앞뜰엔 잼 용 과일나무 심어

구 소련시절보다 어렵게 느껴지는 삶이지만 실제론 나아지는 듯

을 파송했다고 합니다.

돌아보니 은사시나무가 많습니 다. 하얀 몸통의 배료자나무(은사시나무)를 초봄에 트렁크(trunk) 아래쪽에 상처 내어 튜브를 꽂아 물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물을 식혜처럼 발효시켜 마신대요. 한번 마셔보고 싶은 마음에 다음 방문은 봄에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이 많은 지역이라 추위에 대비하여 신학교 건물 벽이 두툽합니다. 집집마다 방공호 같은 지하 저장고가 있어 그곳에 각종 채소와 음식을 저장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지정학적 위치로 볼 때 러시아에서 '서방'으로 통하는 관문'으로 러시아의 가스가 우크라이나를 통과해 서방으로 수출되며 우크라이나에서도 사용됩니다. 크리미아보그 기차 정거장 뒤쪽 공원을 걷다가 제 팔을 크게 벌려 두 아름답도 될 것 같은 동근 철 통들이 길게 누워있는 것을 봤습니다. 천연 가스가 지나가는 관이랍니다. 가스가 식어지지 않게 두툽한 천으로 둘러싸 보온을 한 것 같

들의 용변장소로 사용되는 천연가스 운송로가 생소했습니다. 도시에서는 전기, 전화, 상하수도들이 모두 땅 밑에 묻혀있는데 이곳은 작은 도시라서 모두 노출되어 길옆에 있습니다.

집집마다 앞뜰에 과일나무들은 거의 심겨져 있는데 주차장은 없어 앞으로 주차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신학교에서 사용하는 사과잼과 호두잼은 앞마당에 심겨진 과일나무로 직접 따서 만든 것이랍니다. 세모 혹은 네모진 모양의 빵으로 호박과 고기를 넣어 만든 것을 삼사 빵이라고 합니다.

큰 아파트에도 주차장이 없어 질문하니 구소련시대 거주자의 자유가 없으니 차가 필요 없었습니다. 대신 버스와 기차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한 방에 4명이 누워갈 수 있는 침대차는 전에 여행하던 로마-파리행 기차와 비슷했습니다. 담요와 이불은 더 포근했던 기억입니다.

고기, 빵 값이 오르고 국가가 관리하는 전기, 수도, 가스 값이 올라 구소련 때보다 살기가 어렵다고 합

도 합니다.

부모들이 노동자이므로 방학이 되면 자녀들을 수용할 목적으로 휴가 캠프에 보내곤 했는데 지금도 방학 때는 어려워도 당연히 캠프에 보낸답니다.

키예프 국립대학교

길을 걷다가 온통 빨간색인 건물 앞에 놀라 우뚝 섰습니다. 우크라이나 최고의 키예프 국립대학교입니다. 16개 학부에 25,000명 학생과 3,000여명의 교수진을 가진 이 학교의 정식 명칭은 타라스 쉼브첸코 키예프 국립대학교(TARAS SHEVCHENKO NATIONAL UNIVERSITY OF KYIV)로 우크라이나의 민족시인, 쉼브첸코 타라스 그리고리비치(1814-1861)의 이름을 따서 그리 부른답니다. 러시아 짜르가 우크라이나 독립을 주장하는 시위파 잦았던 이 대학교에 빈틈없이 붉은 색을 칠하라 명했습니다. 그때의 흔적이 남아 아주 붉은 이색적인 모습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건너편의 공원에는 쉼브첸

코의 손을 맞을 때 내놓는 흐렘술이라 불리는 빵을 준비하는 것이 이들의 혼례 전통이라고 합니다. 결혼식 빵은 밀가루 반죽으로 솔방울, 기러기, 비둘기 모양으로 장식하는데, 필자가 본 것은 타원형의 크고 긴 빵으로 여러 무늬가 장식돼 있었습니다.

이 빵은 성스러운 제물로서 친족 관계의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 친지들과 이웃들이 가져다준 밀가루로 만들어진대요. 흐렘술 빵은 한 조각씩 떼어 소금에 찍어 먹는다고 합니다. 혼례식 동안 신랑 신부는 예수님의 성상과 마리아와 아기예수의 사진액자(수놓아 장식한 하얀 수건으로 둘러싸움)를 두 손으로 정중히 들고 있었습니

다. 민속박물관 선물가게에서 혼례 예식 때 눈여겨봤던 민속의상을 한 장 구입하면서 화관도 한번 써보았습니다. 슬라브계의 백인에게는 화사하게 잘 어울리던 화관이 필자에게는 영 어색했습니다.

(계속)

2014년 6월5일 '목회자의 날' 기념 세미나

4/14 Window Movement 한국 컨퍼런스 함께

한국교회정보센터(www.kcdc.net)와 4/14한국총연합(www.4to14.net)이 공동주최하는 '2014년 목회자의 날 기념 세미나'가 6월 2일(월)부터 5일(목)까지 흰돌산기도원에 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별히 '4/14'으로 표시되는 '4/14Window Movement'가 전격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며 이 운동이 한국교회에 본격적으로 정착되고 확산되는 기회가 되기 위해 '4/14 윈도우 한국 컨퍼런스'도 겸하게 된다.

'4/14'으로 표시되는 '4/14 Window Movement'는 4-14세 연령층인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파해 미래 교회의 주인으로 삼자는 새로운 전략적 전도운동이라고 말하며 '4/14 윈도우 한국 컨퍼런스'를 통해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다음세대'를 회복하고 영아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가 부흥돼 성과를 거둔 교회들이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미나에서 소개될 교회들은 4/14세대들에게 희망을 걸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자원으로 훈련하고 교회학교를 부흥시킨 교회들이다. 이번 세미나는 성공사제가 공유될 때 실제로 각 교회에서 실행하는 내용을 참석목회자들 앞에서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이번 세미나에는 이 지구상에 4/14 사역이 있게 만든 주역들이 강사로 초청됐다. 미주지역에서 뉴욕프라이미스교회의 김남수 목사, 캠퍼스 총재인 Wess Stafford,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정인수 목사와 국내에서는 연세중앙교회 윤석진 목사, 4/14한국 총연합을 대표해 김항안 목사, 한국에서 영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잠22:6)

부, 청소년부, 중고등부 대학부를 발전시킨 교회의 담임목사들인 이영희 교수, 김종준 목사, 이병열 목사, 장순직 목사, 허태호 목사, 구교성 목사 등이 생생한 부흥의 비결을 공개하게 된다.

김항안 목사는 금번 세미나 안내와 함께 어린이 선교를 거듭 강조하며 4/14 운동에 관해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복음을 듣는 가장 적당한 나이는 4세부터 14세까지다. 이 나이의 어린이들이 복음을 들으면 일반적으로 85% 정도가 믿음을 갖게 된다. 이는 15세부터 30세까지 세대에서 10%, 30세 이상 세대에서 5%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은 수치이다. 어린이선교는 복음사역에 있어서 매우 효율적이다. 성인보다 17배의 효과가 있다. 그러나 어린이선교를 위한 에너지 투입의 시간이나 정도는 성인보다 훨씬 적은 안타까운 실정"이라며, "이제 우리는 어린이 구원운동에 눈을 돌려야 할 때다. 4/14 Window Movement는 전세계의 어린이를 구원하려는 운동이다. 미래 교회를 살리는 마지막 운동이며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거대한 복음화 운동이다. 우리는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을 전도하고 미래를 위한 일꾼으로 세우야 한다. 우리에게 4세부터 14세의 어린이를 변화시킬 책임이 있다. 4/14 운동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시대적 명령이다. 이 운동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운동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운동이다. 이 운동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난해 세미나 때 참석한 여성목사와 사모들에게 한국교회정보센터(김항안 목사)가 약속한 "친송가 반주와 전자키보드 나눔" 행사도 결집된다.

이 행사는 작년 세미나 때 "1년 동안 찬송가를 반주할 수 있게 연습해서 반주가 가능한 분들에게 전자 키보드 100대를 경품으로 드린다"고 약속한 것을 실행하기 위함이다. 신청자가 많을 때는 추첨으로 하며 그 외에도 승용차 3대와 인쇄기 강대상 등 많은 경품이 준비되었다.

세미나에 관한 문의로는 www.kcdc.net / www.4to14.net 이나 전화(한국) (02)1566-3004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 그리스도 뉘스로 뉘를 입자 ”

성령 대 부흥성회

성령으로 회개로 주님 맞을 준비하자
알라바마 순복음교회는 성령 대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 오순절에 임하였던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각 영혼들 마음에 운행하며 놀린 자가 회복되고 갇힌 자가 자유함을 얻고 상한자와 고통하는자는 고침받는 성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영혼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오니 부디 오시어 성령으로 충만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김진규 목사.

| 부흥성회 일정 | | |
|-----------|------------------------|--|
| 6월 9일(월) | 저녁 7시 | |
| 6월 10일(화) | 새벽 5시, 낮 오전 10시, 저녁 7시 | |
| 6월 11일(수) | 새벽 5시, 낮 오전 10시, 저녁 7시 | |
| 6월 12일(목) | 새벽 5시 | |

- 일 시: 2014년 6월 9일(월)~11일(목) 아침까지
- 장 소: 알라바마 순복음교회
3331 Rucker Blvd, Enterprise AL 36330
전화(334)347-1675, (334)475-9933(CP)



담임 김진규 목사

주관 : 알라바마 순복음 교회
Alabama Full Gospel Church

후원 : 미주오순절연합총회